

소속: 경기대학교 유아교육과

직책: 부교수

교신저자 : 이부미

교신저자 이메일: boomilee@kyonggi.ac.kr

공동육아의 하루일과에 대한 실천적 개념과 교육적 의미 탐색*

이 부 미**

이 연구는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하루일과에 대한 실천적 개념과 교육적 의미를 일상생활의 맥락에서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하루일과에 대한 실천적 개념은 다음과 같다.

아침열기: 첫 호흡을 하는 시간 - **아침모듬:** 하루일과의 진입 공간 - **나들이:** 순환적 일과구조의 중심 축 - **점심 먹기:** 식욕을 충족하는 문화적 시간, 살아있는 대화의 시간 - **낮잠 자기:** 생체리듬을 회복하며 밀착된 소속감이 이루어지는 시간 - **오후활동:** 하루 흐름의 순환성을 회복해야 하는 시간 - **자유놀이:** 기다리는 시간-감질나는 시간-치열하게 노는 시간 - **전이과정:** 있으면서 없고 없으면서 있는 시간이다.

하루일과의 교육적 의미는 자유와 질서가 상호 침투 교섭되는 삶의 그물망, 개인과 집단생활의 조화를 이루는 삶의 구성체계, 그리고 삶이 흐르는 시공간 체계였다.

주제어: 하루일과(Daily routine)

교육시간(Time in daily practice)

질적 연구(Qualitative research)

공동육아(Cooperative child-care)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의 삶은 순간, 순간의 연속이면서 동시에 일정한 시간 단위를 기준으로 반복된다. 이렇게 반복되는 하루하루의 삶을 일상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일상의 삶은 특별하지 않고 소소하며 평범하다. 하지만 평범한 삶의 일상성이야말로 추상적이고 인위적인 단 하나의 진리와는 거리가 먼 우리 삶의 적나라한 부분이며 구체적인 실존의 세계라는 점에서 최근 여러 학문분야에서도 일상의 재발견에 주목하고 있다.

일상의 생활세계에 대해 주목한 현상학에서는 일상의 반복이 사소한 것으로 치부되어 '진지한 어떤 것'으로 여겨지기 어렵게 된 원인으로 '언어주의', '객관주의', '타자화 전략'을 비판한다. 즉, 언어가 우리의 일상적인 세계를 정형화, 박제화하고 그 결과를 세계인 양 착각하게 한다는 점이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매일같이 생활하는 일상은 우리 각자로부터 독특한 방식으로 의미를 부여받은 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객관주의로 환원하면 동일한 의미를 가진 일상으로 해석되는 문제점 또한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식세계 또는 활동에서 위계적인 체계를 산출하는 장치인 타자화 전략이 정상적인

* 이 논문은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한 것임.

** 경기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boomilee@kyonggi.ac.kr)

것과 비정상적인 것 사이의 일방적인 지배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을 비판한다(조상식, 2005).

따라서 현상학에서는 일상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인간이 세계 속에서 무엇을 느끼며, 어떤 의미로 그 세계와 대면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중요하다고 본다. 일상이 반복된다는 점에서 볼 때, 일상생활은 이미 주어진 어떤 삶의 체계일수도 있다. 그러나 현상학에서는 우리가 경험하고 직관할 수 있는 생활세계의 참다운 위치를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조상식, 2005).

일상성은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대상이다. 문화가 일상적인 우리들의 삶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상적 삶의 미세한 결을 파고드는 생활세계와 일상성을 중심으로 하는 일상문화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또한 고조되고 있다(일상문화연구회, 1988).

일상문화란 특정 사회의 구성원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삶의 **세계에서 형성되는 삶의 양식으로서, 유사한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주변의 세계를 유사한 방식으로 경험한다. 이는 마치 문법이 사람들의 언어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이 사람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일상성은 무의식적인 것이므로 사람들은 이를 명확히 인식하거나 설명하지 못하지만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거나 행동을 결정할 때 작용한다. 내면화된 잠재적인 일상적인 문화는 형식적 문화보다 더 강하게 사람들의 행동을 규정한다(이정선, 2003).

이런 점에서 볼 때, 공통의 문화적 범주를 이루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의 일상문화에 대한 관심과 주목은 구성원들의 삶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상성이 특정 사회의 구성원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삶의 세계에서 생성되는 것이라면 학교나 유아교육기관의 구성원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생활세계를 구성하는 일상의 그물망은 하루 일과라고 할 수 있다. 교육기관의 하루일과란 개인의 삶의 리듬을 포함한 집단적인 삶의 체계인 동시에 제도적인 시간성을 갖고 있다. 집단적인 삶의 체계 안에서 교사와 어린이들의 구체적인 생활과 활동이 구성된다는 점에서 하루일과는 삶의 리듬인 동시에 교사와 어린이들이 공유하는 삶의 문법체계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유치원의 하루일과를 들여다 보는 일은 교사와 아이들의 구체적인 삶을 대면하고 그들의 일상생활을 이해하는데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처럼 교육의 일상성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학교의 일상문화에 대한 연구 관심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초등학교의 일상문화를 어린이와 교사들의 생활세계 속에서 다양하게 포착한 교사들의 연구(광주교육대학교 초등학교문화연구소, 2003)는 학교생활의 잠재적 교육과정을 일상성의 맥락에서 보여줄 뿐 만 아니라, 교사들의 자기성찰의 학교생활 이야기라는 점에서도 매우 돋보이는 연구이다.

최근 유아교육 분야에도 유아들의 일상생활, 하루일과를 통한 유아들의 경험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가 경험하는 하루 일과에 대해 만 3세, 5세 유아 166명을 대상으로 관찰연구를 실행한 이경미(2009)의 연구는 유아의 특성(성파, 연령)과 기관의 특성(유형, 질)에 따른 하루일과 경험의 차이와 하루일과 전반에 걸친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성을 뺀 나머지 변인들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고 하루일과 전반에 걸친 특성에 있어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그가 일상성의 이론적 배경으로 도입한 현상학 및 상징적 상호작용주의의 철학적 관점과 다수의 어린이를 짧은 시간동안 관찰, 분석한 연구방법론 사이에 존재하는 논리적 틈, 즉 연구논리와 방법 사이의 불연속성은 이 연구가 제공하는

의미있는 결과 제시에도 불구하고 제한점으로 작용한다. 연구 당사자 또한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하루일과의 의미를 이해하려는 질적 연구의 필요성과 유아의 하루일과를 유아교육 측면에서만 아니라, 일상이 유아의 삶에 어떤 의미와 기능을 하는지 일상생활 측면에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하였다.

교사와 어린이들이 공유하는 삶의 문법체계가 학교의 일상문화를 형성한다고 할 때, 한 교육기관의 문화에 따라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일상적 삶의 문법체계는 다양할 수 있다. 다시말해 매일 반복되는 일과생활의 구체적 경험과 그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교사와 유아의 일과를 중심으로 표준보육과정과 생태보육과정의 운영 실제에 관한 비교연구를 실시한 서영희(2008)의 연구는 교육기관이 지향하는 교육철학에 따라 유아와 교사가 경험하는 일과생활이 어떻게 다른 지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하지만 극명하게 대비되는 일과생활의 경험을 보여주는 만큼, 일과생활 자체에 대해 구성원들이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과 이에 대한 촘촘한 의식과 성찰적 과정에 대한 탐색은 부족하다. 일과생활 자체보다는 보육 과정에 연구초점을 둔 까닭이라고 판단된다.

일상성에 대해 “특별교사”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이탈리아 레지오 에밀리아 교육자들은 5세반 어린이들의 전형적인 하루일과를 기록하여 정교하게 “다시 읽기”를 함으로써, 어린이의 “생활함”에 대해 스스로 묻고 대화하면서 이론적 선언과 일상적 실천 간의 통합성에 대한 그들의 고민을 드러내 주었다(Strozzi, 2005).

이현진(2009)은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전형적인 하루일과를 비디오로 기록한 후 30분 분량으로 압축하여 재구성한 비디오 클립을 공동육아 내부구성원들과 외부자인 일반 유아교육자들에게 보여주고 해석하는 Video-Cued Multivocal Ethnography(Tobin, Wu, & Davidson, 1989)¹⁾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이 연구는 하루일과라는 압축된 일상성을 통해 공동육아의 문화적 특성을 ‘대화의 방식’, ‘공간개념’, ‘시간개념’, ‘관계형성과 나들이’로 추출하고 이에 대한 유아교육자들의 철학과 관점, 교육적 가정을 다양한 목소리로 들려주고 있다. 이 연구는 일상생활에 포착된 교육사회의 철학, 전제와 가정, 개인들이 부여하고 있는 집단생활의 의미 방식들을 해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우리사회의 대안적인 보육기관인 공동육아는 생활시간을 분리된 제도적 시간으로 분할한 일과생활을 담고있는 표준화된 보육 프로그램을 비판하는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공동육아를 창시한 핵심멤버중의 한 사람인 정병호(1994)는 “공동육아의 생활환경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일은 일상생활의 시간을 어떻게 짜는가 하는 것이다. 활동 시간이 기계적으로 구분된, 산업 사회의 시간의 템포로 딱 짜여진 하루 생활이 아니라, 자연의 시간 감각으로 하루 하루를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언급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의 자연적인 시간의 흐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연구자는 학교의 일상문화를 형성하는 반복적인 삶의 문법체계가 하루일과라고 보고, 공동육아의 하루일과에 담기는 구성원들의 일상생활의 가치에 주목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공동육아 어린이집 구성원들의 생활세계를 구성하는 반복적인 삶의 시간체계인 하루일과를 시시콜콜하게 대면하여 그들의 구체적인 삶의 경험으로부터 구성되는 일과활동에 대한 실천적 개념과 삶의 주체자인 교사들이 하루일과에 부여하는 사회문화적 의미를 포착하고자 한다.

1) 이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연구한 Tobin, et al의 연구, “Preschool in Three cultures: Japan, China, and United States”는 우리나라에서도 번역되어 있다.

공동육아가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교육적 실험을 시작한 지도 15년을 넘어가고 있다. 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공동육아 구성원들의 독특한 시간감각으로 구성된 일과생활은 안정되어 가면서 동시에 동일하게 살아야 되는 시간 목록표라는 무의식적인 삶의 반복 체계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반복되는 삶은 별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거나 우리가 특별히 의식하지 않는 한, 무의식적인 수행의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객관적인 보편성을 담보한 이론적 태도로 다 해명되지 않는 일상이라는 생활세계를 대면하여 ‘이미 주어진 하루일과’의 생활과 경험을 시시콜콜하게 검토하는 일은 반복적인 하루 일과를 통해 잠재되고 내면화된 생활 의식을 재발견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일상의 재발견은 일과생활을 성찰적으로 돌아보게 함으로써 공동육아의 생활세계의 구조를 재발견하고 재구성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아울러 일반 유아교육 사회의 일과생활을 성찰적 시각으로 재조명함으로써, 어린이를 교육하는 사회가 지향해야 할 생활세계의 보편적²⁾ 구조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제공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볼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 하루 흐름에서 각 일과활동들의 실천적 개념은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가?
2. 공동육아 사회 · 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하루일과의 교육적 의미는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1. 연구의 배경과 연구 참여자

이 연구는 연구자가 공동육아 교사들과 함께 공동육아의 일과생활을 주제로 수행한 ‘협력적 실험연구’의 일부분에 해당된다. 이 연구는 2006년에 연구자가 이끌어오던 교사연구모임이 2007년 ‘현장연구 모임’으로 재구성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아직도 진행 중인데 2010년 12월에 대단원의 막을 내릴 계획이다. 이 장기 연구를 수행하면서 연구자의 1차적 관심은 실험연구를 수행하는 교사들의 ‘연구자로서의 경험’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 그래서 교사들의 3년간의 실험연구 경험을 정리하여 “공동육아 교사들의 협력적 실험연구 경험에 대한 탐색”이라는 논문을 2010년에 발표하였다. 그런데 연구자가 글쓰기를 시작하기 전 시점부터 교사들의 연구는 중단되는 사태를 맞게 되었다. 즉, 교사들과 함께 연구한 일과생활은 교사들로 하여금 공동육아 내부적으로 연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글쓰기 단계에서 미완성되는 사태를 맞게 되었다. 이 상황에서 연구자가 정리한 실험연구 경험에 대한 논문을 교사들에게 참여자 확인과정(member checking)차원에서 읽을 기회를 제공하였다. 연구자의 결과물을 읽은 교사들은 힘을 얻어서 본인들의 연구 작업을 중단하지 않고 이후에 재정비 하여 마무리를 하기로 연구자와 합의하게 된다. 이후 연구자와의 공동육아 일과생활 연구에 대한 합의 과정에서 일과생활에 대한 전사자료 및 1차 분석자료를 공유하되, 연구자의 글쓰기와 교사들의 글쓰기를 독립적으로 병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래서 1차 분석 자료를 중심으로 다시 심층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워크숍을 통해(2010. 08. 14), 교사들의 공동육아 내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글 쓰기의 방향과 내용을 재조정하였다. 그리고 가능하

2) 실증주의의 객관주의적 보편성이 아니라, 현상학에서 말하는 간주관적 보편성을 말한다.

다면 2011년 01월 공동육아 교사대회에서 이 두 개의 결과물을 함께 발표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하였다.

교사들과 함께 한 이 장기연구는 기본적으로는 협력적 실험연구(collaborative action research)이다. 상당한 시간을 갖고 우리는 “공동육아의 하루일과”라는 연구주제를 결정하였고 교사들은 6개월간 사진기록으로 일과생활을 포착하고 이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 결과를 공동육아 전체 교사들 앞에서 발표하는 기회(2008.01-공동육아 겨울교사대회)를 가짐으로써, 1차 연구가 마무리된다. 1차 연구 후, 연구의 부족한 점과 이를 보완하는 보다 완벽한 연구를 수행하겠다는 교사들의 의지에 따라 2차 연구가 2008년부터 다시 이루어졌다. 2차 연구는 참여관찰연구방법으로 일과생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토론을 통해 분석하는 과정이 이루어진다. 그러다가 2008년 하반기부터 전체적으로 연구 동력이 떨어지는 사태를 맞게 된다. 2009년부터 연구자와 교사들은 연구를 회생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였지만, 교사들의 글쓰기 단계부터(2009년 중-하반기)는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았다. 그 상황에서 교사들의 실험연구 경험에 대한 연구자의 논문이 나오면서, 교사들의 의지가 다시 발견되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공동육아의 일과생활에 대한 연구 결과물이 두 개가 생산될 예정이다. 같은 자료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분석하고 표현하고 공유할 수 있는 가능성은 협력적 실험연구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모두 15명 정도였는데, 5-8년 경력교사가 9명, 8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페다고지스타(현장교육지원전문가)³⁾가 6명이었다. 이들 중 12명 정도가 처음부터 끝 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2.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2007년 1월부터 2009년 3월 까지 총 20회에다 2010년 8월의 워크숍 자료까지 총 21회에 걸쳐 수집 되었다. 본 연구 모임은 매월 1회 토요일에 진행되었는데 아침 10:00부터 오후 3-4시 까지 이루어졌다. 연구모임에서는 실험연구에 대한 연구자의 안내, 교사들이 수집해 온 자료에 대한 분석과 토론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이 과정에 대한 연구자의 자료수집은 비디오 기록 19회, 녹음기록 1회, 수기기록 1회로 이루어졌다.

수집한 자료를 전사한 총량은 520페이지 분량이었다. 이 중에서 일과생활에 대한 실험연구 1차 자료를 구성한 분량이 약 280페이지로 압축되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일과생활 연구 내용과 교사들의 실험연구 과정 및 경험에 대한 내용을 구분하여 130여 페이지 분량의 2차 분석 자료를 구성하였는데, 일과생활 자체만으로 이루어진 내용이 약 60페이지 정도 되었다. 내용을 크게 일과활동 별로 아침열기, 아침 모듬, 나들이, 점심 먹기, 낮잠 자기, 오후활동, 자유놀이, 전이과정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이렇게 정리한 구조 속에서 각각의 3-6개 정도의 하위주제들을 추출하였다. 예를 들어 나들이의 경우, 나들이의 이중성, 일과의 해방구, 순환구조, 시간, 공간, 경험의 순환이라는 하위주제가 발견되었고 전이과정의 경우, 연결회로, 중첩적 시공간, 협력적 운영, 반짝반짝 틈새, 복잡한 상호작용 등의 하위주제가 개발되었다. 그리고 모든 일과활동을 관통하는 공동육아 사회문화적 맥락 하에서 일과활동의 의미에 해당하는 주제를 추출하였는데, 크게 자유와 질서, 개인과 집단이라는 상용

3) 현장교육지원전문가는 한 두 개의 어린이집을 순회 지도 운영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공동육아 내부적으로 전문성이 인정된 교사들로 구성되는데 현재 1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 제도는 레지오에밀리아의 ‘페다고지스타’ 제도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 1997년부터 시작되었다.

적 구조의 주제들과 생활과 삶의 틀이라는 주제로 줄기를 잡게 되었다. 3차 분석과정을 거쳐 드러난 하위주제 하에 전자 자료들을 재배치하고 초벌 글쓰기를 시작하였다. 초벌로 쓰여진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어가면서 분석이 좀 더 정교해지고 동시에 글쓰기도 가다듬었다. 결국, 글쓰기가 사고의 표현태인 까닭에 글쓰기와 분석이 함께 맞물려 가는 순환적 과정을 통해 글쓰기와 분석이 함께 정교해졌다.

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완료된 텍스트를 유아교육 전문가에게 동료보고(peer debriefing)를 실시하여 피드백을 받아 연구자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수정을 하였다. 그 이후에 작성된 최종 텍스트를 참여자 확인과정(member checking)을 통해 공유와 확인을 받는 절차(Lincoln & Guba, 1985)를 거쳤다.

III. 하루일과에 대한 교사들의 실천적 개념

공동육아의 하루일과를 평면적으로 펼쳤을 때는 아침열기-아침간식-자유놀이-아침모듬-나들이-점심 먹기-자유놀이-낮잠 자기-오후간식-오후활동-자유놀이-집으로 가기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하루일과를 교사들의 실천적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개념을 개략적으로 안내하면 다음과 같다.⁴⁾

1. 아침열기: 첫 호흡을 하는 시간. 2. 아침모듬: 하루일과의 진입 공간 3. 나들이: 순환적 일과구조의 중심 축 4. 점심 먹기: 식욕을 충족하는 문화적 시간, 살아있는 대화의 시간 5. 낮잠 자기: 생체리듬을 회복하며 밀착된 소속감이 이루어지는 시간 6. 오후활동: 하루 호흡의 순환성을 회복해야 하는 시간 7. 자유놀이: 기다리는 시간-감질나는 시간-지열하게 노는 시간 7. 전이과정: 있으면서 없고 없으면서 있는 시간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아침열기: 첫 호흡을 하는 시간

교사들은 아침열기-아침간식-자유놀이-아침모듬 이 전체과정을 ‘아침열기’로 보는 동시에 각각을 또 달리 보는 복잡성을 대화과정에서 드러내었다. 이러한 복잡성은 나들이 가기 전까지의 아침시간에 이루어지는 활동이라는 공통성에 대한 인식이 개입된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런데 아침간식을 연구에서 제외하였고 아침 자유놀이의 경우, 하루에 세 번 이루어지는 자유놀이 전체 맥락적 흐름으로 독립적으로 탐색하였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아침열기와 아침모듬을 독립적으로 기술하지만, ‘따로 또 같이’의 흐름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어떤 행위나 활동에 대해 특히 공식적인 이름을 붙이는 배경에는 그 사회가 공유하는 가치와 문화적 특성이 맥락으로 작동한다. 공동육아의 아침열기는 일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일과로 보면, 등원에 해당된다. 이런 일반적 개념의 등원을 왜 공동육아에서는 왜 아침열기라고 부르는 지, 하루의 시작으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라는 연구자의 질문에서 우리는 출발하였다.

<사례 1>

.....

4) 아침간식, 오후간식, 집으로 가기(하원)은 제외하였다.

스콜라: 사진 상으로 보이는 아침열기의 모습은, 나들이 가기 전까지를 아침열기로 봤을 때, 상당히 스펙트럼이 넓었다고 생각이 돼요....

둘리엄마: 아침열기가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이 눈 떠서 첫 호흡하듯이 어린이집의 첫 호흡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문제이잖아요.....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대다수의 유아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차랑을 운영하지 않는다. 대신 부모들이 직접 개별등원을 하거나 카풀을 통한 등원을 하다보니 어린이집마다 등원의 모습이 여러 요인들에 의해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체 공동육아 어린이집이 공유할 수 있는 아침 열기는 ‘어린이 집의 첫 호흡’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부각된다.

<사례1-1>

호랑이:..... 그제 집에서 어린이집으로 옮겨오는 전이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개별적으로 집마다 다 문화도 다르고 아이의 생활패턴도 다 달라. 개인적으로 가져오는 생체적인 리듬도 다르고 기분도 다르고 다 달라. 어떤 집단이 함께하는 행동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침열기 시간, 등원에서부터 최소한 아침 모듬 하는 시간까지는 그것을 아이 개별적인 특성에 맞게, 혹은 교사도 마찬가지로 하루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시간을 조율하고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인 거죠.....그래서 교사와 개별적인 아이의 상호작용도 좀 더 섬세하게 들어가야 하죠.....(2007.12-15)

교사들은 첫 호흡을 하기까지의 각 어린이의 개별적 특성, 가정에서 어린이집에 이르기까지의 개별적 과정에 대한 토론 외에 교사, 부모들의 첫 호흡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였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 잘 와서 자녀와 잘 헤어지는 부모들의 첫 호흡은 그들의 일상에 조차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에게는 편안하게 어린이집에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간 마련에 대한 이야기도 하였다. 이렇듯 어린이집의 첫 호흡은 각각 개별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어린이, 교사, 부모들이 만나는 순간에 이루어진다. 이 시간은 어린이, 교사, 부모가 만나는 순간이면서 동시에 부모와 헤어지는 미묘한 시간이기도 하다. 아이와 부모입장에서 보면 이 시간에 대한 감정은 복잡 미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간에 대한 감정을 교사들이 예민하게 이해하고 배려하려면, 부모들이 편안히 머물다 헤어질 수 있는 공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아침 열기는 각각의 특성을 가진 개인들이 모여서 집단으로 첫 호흡을 하는 시간이다. 이러한 만남과 첫 호흡은 어린이, 부모, 교사의 하루의 생활양상이 결정되는데 매우 중요한 시간이다.

공동육아에서 등원(登院-유치원에 가다) 대신 사용하는 ‘아침 열기’라는 언어는 ‘첫 호흡’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개별적인 특성들이 만나서 집단으로 잘 지내기 위해 서로를 조율하고 호흡을 고르는 시간이다. 이러한 아침열기의 첫 호흡은 아침간식, 아침 자유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안착되면서 아침 모듬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아침모듬은 앞의 호흡을 자연스럽게 이어받되, 교사의 보다 적극적인 의식적 개입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특성에 대해 교사들은 하루일과의 진입공간이라는 해석을 하였다.

2. 아침 모듬 : 하루일과의 진입 공간

공동육아의 ‘아침모듬’은 일반 보육기관이나 유치원에서 매일 아침 이루어지는 ‘이야기 나

누기'와 유사하다. 그런데 이를 굳이 '아침모듬'이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

<사례 2>

둘리엄마: 그것은(첫 호흡)은 전이로써, 맞이하는 부분이고, 아침 열기(아침모듬)는 그걸 모아서 맞춰가는 시간이다.

.....

호랑이: 모듬까지의 의미를 그렇게 둔다면, 잘라서 보면 정식으로 아이들을 모아놓고 아침 모듬을 하는 시간이 아침 열기 시간이 맞는 것 같아요. 마치 마당에서 집으로 들어올 때 현관을 거쳐서 오듯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이 시간에 교사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그걸 진행하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2007.12-15)

소나무: 그래서 간식을 먹고 나면 모듬을 하잖아요. 방 모듬을 하는데 방으로 모듬을 하는 날은 보면 주로 나들이를 어디로 갈 것인지 그 방끼리의 이야기를 나눌 때 방 모듬을 많이 하고요. 전체적인 모듬을 하는 것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모듬을 할 때에는 그 어린이집이 다 같이 함께 공유해야 되는 약속이라든지, 새로 등원하는 아이들이 있다든지 한다면 전체적인 모듬을 하고요. 전체적인 모듬을 할 때 보면 주로 차를 마시기도 하고,(2009.03-04)

교사들은 사진관찰을 통해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을 어린이집 대문으로 포착하면서, 대문의 순간의 무의식적 진입이라면, 아침 모듬은 하루일과를 시작하기 위한 의식적 진입공간이라는 해석을 하였다. 아침 모듬은 작게는 방별로, 크게는 전체 어린이집 구성원들이 하루의 삶을 계획하고 조정하는 일이고, 대화와 의례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사의 의식이 매우 중요하게 작동한다. 공동육아의 '아침모듬'은 하루의 삶에 대한 대화로서 하루일과를 시작하기 위한 진입공간의 의미를 갖고 있는 동시에 집단의 정체성이 부여되는 시간이기도 하다.

1) 관습화된 아침 일과에 대한 반성적 질문

공동육아는 처음부터 표준화된 교육과정과는 거리를 두고 스스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선택했기 때문에 일과구성도 시행착오를 거쳐 만들어 온 역사를 갖고 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침 모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사례 3>

스콜라: 아침 모듬이라는 걸 하기 시작하는 걸 보면 그렇게 처음부터 하진 않았거든요. 중간부터 우리가 그걸 했는데 그게 상당부분 애매모호하게 개인차를 배려하다 보니까 거의 나들이시간까지도 아이들의 동원이 이루어진단다지.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는 출발지점이 상당히 개별적이면서 개방적이어서, 교사가 하루를 이끌어 가는데 애들하고 조절하는 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열기를 만들면서, 차 모듬이라든지, 과일 모듬이라든지 모듬을 만들면서 하루를 일제히 같이 시작하는 지점을 잡자는 것이 아침 모듬의 시작이었고, 그런 성과들이 옆으로 전파되면서, 아침 모듬이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생활문화로 끌어들어왔...

.....

호랑이: 거기에 의미를 두고 시작을 했죠. 그런데 현장선생님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린 이렇게 해, 해서 하긴 하지만 선생님들이 정말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2007.12-15)

아침모듬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너무나 개별적인 아침의 시작이 산만하여서 차나 과일을 먹으면서 딱딱하지 않게 다 같이 아침을 시작하는 시간을 한 어린이집에서 마련하였고 이 일과활동이 각 어린이집으로 전파되기 시작한 것이다.⁵⁾ 하루를 조율하고 계획하는 의식적 시간 '아침 모듬'은 밖에서 현관을 거쳐 안으로 들어오는 진입로와 같은 의미를 하루일과의 흐름에서 갖고 있다. 이러한 '아침 모듬'의 의미를 놓칠 경우, 자칫 정형화된 일과로서의 매일 해야만 하는 활동이 될 수도 있음을 교사들은 의식하고 있다. 관습은 편견을 생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 '안'의 관습화에 대해 늘 세심하게 돌이켜 생각해 볼 일이다.

매일 이루어지는 일과는 습관화된 일상, 살아지는 틀로서 작동하기 시작하면 그것의 의미를 묻고 새기는 일은 매우 어려워지게 된다. 이런 점에서 일과시간에 대한 사진 기록과 그것에 대한 교사들의 토론은 자신들의 일상을 "다시 읽는" 교사로서의 전문적 행위로서의 의미가 있다.

3. 나들이

나들이는 자타가 공인하는 공동육아의 대표적인 교육활동이다. 오전 10:00 - 12:00 사이에 약 두 시간 정도 어린이집 바깥 공간(주로 자연 및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나들이를 하루일과의 흐름에서 어떤 개념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나들이는 순환적 일과구조의 중심 축

공동육아 구성원들이 대문을 통해 어린이집에 들어와서 첫 호흡을 하고난 후, 아이들과 교사들은 그 대문을 통해 다시 바깥으로 나갔다 들어온다. 나들이를 하고 오는 것이다. 이러한 나들이는 하루일과의 맥락에서 공간, 시간, 체형적으로 어떠한 순환성을 제공하고 있는 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시-공간적 순환

하루에 어린이집을 두 번 드나들게 하는 나들이는 하루일과를 순환하게 만든다. 즉, 나들이 전과 후, 안과 밖을 연결하는 시-공간적 순환과 그리고 체험적 순환이 있다.

<사례 4-1>

소나무: 여기서도 이제 대문이 나오잖아요, 대문이 나오면서 이제 터전 안에서 보면 우리들만의 공간이었는데 나들이에서 집단적으로 대문을 나서는 순간에 사회와의 관계 맺기더라고요. 그래서 터전의 대문이 그냥 있는 대문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이 사진을 보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

호랑이: 나들이 활동도 그때 우리가 생각했어요. 호흡이 들숨 날숨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로 규정할 수 있는 것만 아니지만 나들이를 너무 발산적으로만 해석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들이를 사진으로 스케치해서 봤는데 그렇지만은 않았죠. 나들이는 (집중적으로) 확 하는 것과 빠져나오는 게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활발한 활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2008.01-16)

5) 호랑이 선생님이 있었던 어린이집에서 처음으로 아침모듬을 시작하였는데, 아침모듬 시간을 시행하기 까지, 아침시간에 대한 교사들의 기록, 토론, 활동 방법구안 등의 실천적 연구과정이 있었다. 연구자는 그 당시 박사 논문을 위한 참여관찰을 이 어린이집에서 수행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다.

어린이집 안과 밖을 연결하는 나들이는 어린이들의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고 동시에 나들이 이전과 이후를 연결한다. 이러한 시공간적 연결이 하루일과를 순환하게 하는 외재적 측면이라면, 유아들의 경험에 스미는 내재적 측면이 있다. 그것은 집중적으로 몰입했다 빠져 나오는 나들이의 유기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

② 체험적 순환

체험적 순환이란 나들이에서 집중적으로 에너지를 발산한 후, 신체적으로 먹고, 자게하며 그리고 정신적으로 오후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기적 특성 즉, 살아있는 관계성으로서의 순환성을 말한다.

<사례4-2>

.....
둘리엄마: 스스로 내가 누군가를 발현해 나가는 과정이 나들이 속에 담겨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발현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낮잠도 자야하고 점심도 먹어야 하고 오후활동을 해야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나들이를 우리 교육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나와 밖의 세상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거기에서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 과정들을 원만하게 도와주는 것이 우리 하루 일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나들이가...그래서 그게 나들이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루 일과, 우리의 삶 전체를 같이 이어가는 유기적인 관계여야 한다는 소리를 했던 건데... 어렵나?.....(2007.12-19)

하루 일과 속에서 정리를 해보면, 나들이를 통한 바깥 세상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형성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들이가 밥 먹고 잠자고 오후활동 하는데 민감하게 영향을 미친다. 유아들의 체험을 순환하게 만들면서 삶 전체를 끌어가는 유기적인 관계적 특성이 강한 나들이가 공동육아 교육의 핵심이라고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나들이는 하루일과를 시공간, 체험적으로 순환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구조역할을 한다.

2) 나들이의 이중성으로부터 오는 딜레마

나들이는 하루일과의 부분이면서 그 자체로 상당한 완결성을 갖는 독립적인 일과라는 이중적 특성을 갖는다. 다른 일과에 비해 그 독립성이 높은 까닭은 상당한 시간과 공간의 확보, 다양한 관계적 경험, 높은 수준의 발산과 해방적인 경험을 나들이가 제공하기 때문이다.

교사들이 일과활동으로서, 나들이의 연결성과 독립성의 균형을 이해하고 실천하기보다는 독립적인 나들이 활동으로만 이해하고 실천하기가 더 쉽다. 교사들은 나들이의 실천적 역사 안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혹여 안정된 나들이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었다.

<사례 5>

스콜라: 그러니까 하루의 일과 중에 나들이랑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나들이가 그런 구체적인 의미들이 쟁겨지지 않으니깐 조금 더 특별한 것들을 구안하게 되고, 변화들을 정형화하고요. 더 나아가면 들살이(약 2박3일의 먼 나들이)도 점점 더 무모하게 멀리 더 화려하게 변하는 거예요. (07.12.19)

진달래: 더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점점 교사들이 바뀌고 이러면서 나들이는 그냥 행사, 그냥 독립적인 그런..... 어 그렇죠. 프로그램으로만. 그냥 그거에 아무런 의식이 없고 또 오후 활동은 교사의 주도로 준비해주고 활동하는... 그거(나들이)와는 연관이 되지 않는 그런 걸로 많이 갔었거든요.....

호랑이: 지금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중에서 5월 활동 계획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나들이 연결 활동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데... 몇 년 된 선생님도 마찬가지구요. (09.03-04)

일과활동으로 자리가 잡힌 나들이의 문제점은 다른 일과활동과의 연계성에서 드러났다. 나들이가 하루일과를 순환하게 하는 핵심구조라면 나들이는 다른 일과활동과 밀접한 연계성을 갖고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마치 나들이를 하고 왔기 때문에 밥을 더 잘 먹고 잠을 더 잘 자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일과로서 나들이에는 이런 연계성 외에 완벽한 독립성을 갖는 특성이 있었다. 일과로서 나들이의 이중성 중 독립성을 부각하게 되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고착이 되면서 동시에 나들이 이후의 활동들과의 연계성을 상실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순환의 구조의 기능이 단절된 상태에서 교사주도의 오후활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나마 점심식사와 낮잠은 나들이에서 발산한 에너지를 보충해 주는 신체적인 활동으로서 나들이와의 일과적 연계성을 교사들이 쉽게 인식하는데 반해 정신적인 연계활동으로서의 오후활동은 가시적이지 않기 때문에 교사들이 그 연관성을 인식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까닭에 선배교사들의 나들이 이전과 이후, 두 활동 간의 연계성에 대한 강조와 교육적 요구에 대해, 나들이 경험을 풍부한 정신적 활동으로 연결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나들이에서 가져 온 자연적 소재를 활용하는 정도의 제한적 이해를 하거나 전혀 다른 맥락의 교사주도의 교육활동으로 오후시간을 진행하는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다.

따라서 하루일과의 맥락에서 나들이의 순환적 기능을 공동육아 교사들이 함께 공유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일은 하루일과의 순환성을 살린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4. 점심 먹기

점심 먹기는 어린이의 본능적 욕구를 충족하는 일과인 동시에 기본생활습관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일과활동으로서의 점심 먹기는 본능과 문화라는 차원에서 이야기가 생성되었다.

1) 본능과 문화의 만남

공동육아는 아이들의 본능적인 삶의 욕구를 소외시키지 않는 교육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인간의 먹는 행위는 본능적인 욕구충족과 관련이 깊다. 점심시간은 하루일과 중 그 흐름을 가장 민감하게 본능과 신체로 감지할 수 있는 시간임과 동시에 그 본능적 욕구를 문화화(습관화)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밥 먹는 일과활동에서 먹는 본능과 문화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 지 살펴보자.

<사례 6>

.....여러 어린이집의 점심식사 시간의 사진들을 본 후

스콜라: 왜 중요하지(점심시간이)? 아이들이 먹는 개인적인 습관과 단체로 와서 여기서 먹는

것은 큰 변화하면서 엄청난 직접적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특히 음식을 고루 먹는 다던지 아니면 빠르게 앉아서 집에서와 달리 규칙을 지키며 먹어야 하고 이런 기관에 왔을 때 가장 아이들이 크게 적응에 힘들어 하면서도 가장 변화를 보여주는 부분이 먹는 부분이에요. 배가고프니까 본능적으로 먹어야 되는 욕구와 또 안에서의 질차들을 알아서 순서를 지킨다던지 기다린다던지 이렇게 해서 먹어야 하는 것이 아이에겐 상당히 개별적으로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또 교통스럽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상당히 교사도 에너지가 가장 집중되는 부분이 점심시간.. 나름대로 그 터전의 구조나 시간대를 상당히 면밀하게 고민하면서 자리잡히는 것이 점심시간이죠. 점심시간이 자리 잡히는 것이 터전의 안정으로 볼수있을 만큼. 상당히 많은 시도를 하고 교사들이 어떤 교육활동보다 많은 논의를 통해 배식문제, 식기는 어떤 걸 할지, 식탁보를 깔지 말지 문제부터 밥을 같이 먹다 따로 먹다 여러 방법을 시도하는 게 점심시간인 것 같아요.

.....

기 름: 아이들이 하루일과중 가장 흐름을 알수 있는 게 배꼽시계죠. 나들이 갔다가도 밥시간은 '배고파' 돌아가자 얘기해요. 신체리듬이 규칙적으로 익었다고 생각돼요. 방별로 먹거나 같이 먹거나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죠. 터전 구조나 그 터전의 문화가 있는 듯...(07.11-15, 이부미, 2010, 재인용)

배가 고파서 밥을 먹는 행위는 매우 본능적인 욕구를 채우는 행위이지만, 보여지는 행위 이전에는 단체로 밥을 먹기까지 어린이 스스로 욕구를 조절하는 과정이 생성된다. 이 욕구를 조절하고 충족시키는 과정에 교사들의 복잡한 생각과 행위가 개입되는데, 즉 각 어린이 마다의 개인자를 고려하면서 점심 먹기의 시간과 속도와 질차적 순서, 공간, 의례, 문화적 규범과 장치(편식지도, 영양과 음식, 어른과 아이의 순서, 식탁보. 식기..)를 집단적으로 합의, 갈등 조정, 실행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배고픈 본능과 식욕을 충족하는 행위의 문화화의 정도는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안정에 영향을 줄만한 중요한 일과생활인 것이다.

<사례 6-1>

진달래: 인간의 신체리듬을 본다면 당연히 따라야 하는 시간적 흐름이 있죠. 그것은 살이기 때문에 억지로 연기하고 회피하고 이런 것이 아이들에게서도 나온다고 보는데, 그러한 것을 자연스런 흐름으로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라 생각 돼요. 그 두 부분에서 기본생활습관은 공동육아에서 꼭 가져가려고 노력하는 것이라 생각 돼요.

스플라:..... 생활문화의 부분이고 각 집에서도 보면 밥 먹는게 다 집집마다 다르다. 가족마다 문화를 만들듯이 어린이집도 점심시간의 문화가 단순 규칙이라든지 단체가 움직이기 위한 효율성을 내세우기 위해 만들어진게 아니라서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데 그것은 교육 그 이상의 어떤 것들을 담아내려는 것 같아요. (07. 11-15)

모든 문화에서 음식은 인간의 위치를 중재하고 표현하는 데 중심 역할을 한다. 음식은 마가렛 미드(1967)가 말했듯이, 어른들이 아이들과의 관계를 확립하고 세상에 대해 자신들이 조직해 놓은 태도를 전해주는 가장 초기적이고 중요한 방식 중의 하나이다. 어른들이 아기의 배고픔에 즉각 반응을 하든 기다리게 하든, 평온한 상태에서 음식을 주든 어수선한 상태에서 음식을 주든, 먹는 행위를 즐거움으로 표현하든 실리적으로 표현하든, 이 모든 것은 아이에게 세상이 어떻게든 느낌을 전해준다. 즉 문화적 습관과 신념의 많은 범위가 음식을 먹는 관계에서 표현된다(Du Bois 1941; Shack, 1969, Counihan, 1994(2004),재인용).

먹는 본능과 습관의 조화로운 어울림의 관계, 음식을 먹는 일에 대해 인간의 신체리듬과 공동집단의 생활리듬을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조정하려는 일상의 실천을 공동육아는 '생활문

화'로 설명하고 있다. 생활문화에 교육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2) 대화가 살아있는 시간

문화적 관습의 광범위한 범주에 음식을 먹는 행위가 위치한다고 할 때, 음식과 문화를 감정으로 연결하는 매개체가 바로 대화이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이루어지는 인간의 대화는 독특하다. 어린이들도 점심을 먹는 일과에서 이 즐거움을 알고 있다.

<사례 6-3>

소나무 : 일과 중에서 제일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시간이 밥 먹기다. 다른 때보다 말을 제일 많이 하는 걸 보면...(2007.11-15)

생각보다 훨씬 많은 이야기들이 25분이 채 안 되는 시간에 오고 갔다. 교사는 정신이 없는 시간 이더라고 여겼지만 아이들은 나름의 체계가 있는 것 같다. 마치 어른들이 친구를 만나 저녁 먹은 후 수다 떨듯 그렇게 느껴졌다.....어느 순간 아이들이 조용히 밥만 먹는 순간이 짧게 있었는데 그 조용한 소리가 참 낯설게 느껴졌다. 기쁨을 하다 보니 점심시간에 나름의 질서가 있고, 아이들도 그들만의 세계가 있나보다.(누봉지, 관찰기록 보고서. 2008.05)

교사들이 점심시간을 관찰 기록한 결과, 교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밥 먹고 이야기하자'라는 말이었다. 그런데 아이들의 행동을 관찰한 결과 아이들은 '이야기도 하고 밥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교사들은 더 이상 아이들에게 "밥 먹어라"라는 말을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였다. 아이들이 밥을 먹으며 나누는 이야기들을 집중 관찰한 결과, 이야기 주제가 생각보다 다양하고 풍부했다는 것을 우리는 연구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사례6-4>

아이들은 점심 먹을 준비를 하면서, 밥과 반찬에 관심을 보이며,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야기를 하는 중간에도 밥을 먹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아이들의 생각이 드러난다.

아이들은 밥을 먹는 동안 많은 이야기를 한다.

내가 자랑하고 싶은 장난감이야기 '빋'에서 출발하여 보물찾기, 유켄도 수첩-레고-카프라-자전거-종이블럭-자전거-아빠와 나들이-색깔이야기로 이어졌다.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그리고 교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다양한 관심을 나타내면서도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의 흐름을 잊지 않고 이어나간다. 그러나 새로운 이야기들이 이야기도중 생겨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은 아이들의 관심에서 밀려나고, 또래들이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가 이야기의 중심에 있다.(누봉지, 관찰기록 보고서. 08.04)

아이들의 이야기는 크게 일상생활 이야기, 음식이야기, 공상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아이들에 대해 알게 되는 좋은 방법이다. 아이들은 기꺼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즐겁게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점심시간에도 아이들은 이렇게 이야기 했다. 그리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들은 교사들은 아이들만의 하위문화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이 가르치고자 하는 음식교육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교실문화 맥락에서 어린이 연구를 하는 능숙한 연구자 Paley(1990; Counihan, 1999, 재인용)는 "한 그룹의 공상이 이야기는 그 그룹문화의 기초를 형성한다."고 하였다. 점심시간에 이루어지는 대화를 통해 어린이들은 자신들의 하위문화를 공유한다. 심지어는 어린이집에서 금기시하는 문화까지도...점심시간의 대화는 음식과 함께 그들만의 자기세계를 구축하는 문화적 표현이다. 그래서

이야기를 통해 본능적 욕구와 문화적 만남을 더욱 풍부하게 가져간다. 점심시간에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실제로 점심시간을 방해하는 요소가 아님을 알게 된 교사들은 더 이상 아이들에게 “밥먹고 이야기하자”라는 말로 아이들을 은밀하게 재촉하는 대신 아이들의 이야기에 동참함으로써, 일과 운영적 측면에서도 효과를 보았다.

공동육아 하루일과에서 점심은 본능과 문화가 만나는 시간이며,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 시간이다. 여기서 음식과 이야기는 공동육아 사회의 생활문화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누군가와 먹고 마시는 것은 사회적 공동체의 상징이며 확인이기도 한 동시에 상호의무 수락의 상징이며 확인이기도 하다”(Freud, 1918; Counihan, 1999, 재인용).

5. 낮잠

하루 중일 시골벽적인 어린이집 하루일과에서 조용하다 못해, 침묵이 흐르는 시간이 낮잠을 자는 시간이다. 이 시간은 어린이들이 오전 내내 써버린 에너지를 잠을 통해 회복하는 본능의 시간이다. 동시에 교사들은 이 시간을 기다리고 즐긴다. 그들도 쉴 수 있는 틈새시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은 일과시간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1) 밀착된 소속감의 교류

누군가와 밥을 먹는 것이 하나의 사회적 공동체의 상징인 만큼, 누구와 자느냐 또한 공동체적 상징이 될 수 있다.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 많은 일과활동들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낮잠만큼은 방 구성원들하고만 함께 자기 때문에 이 때 느끼는 소속감이 각별하다고 한다.

<사례 7>

스클라: 거의 아침부터 점심 먹고 낮잠 자기 전까지는 통합도 하고 막 하다가, 일단은 잠 잘 때만큼은 우리끼리 자잖아. 잠자는 방의 멤버가 아이들은 가장 중요하게...

가장 근접한 소속감을 느끼는 단위가 그 단위라는 생각이 들어서.

호랑이: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하루 중일 바쁘잖아요. 다른 방 선생님들하고 마주서서 얘기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되게 바쁜데, 아이들하고도 어쨌면 그렇거든요.... 근데 답임인 내가 내 방 아이들하고 가장 밀도 있는 시간과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은 아침 모듬시간하고 자기 전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낮잠 자체보다, 낮잠 자체도 굉장히 몸을 쉬게 하기 때문에 필요하고 본능적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이미 자는 필요하다고도 생각해요.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잘 하기 위한 관계맺음 시간으로 그 시간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2007. 11-15)

공동육아 하루일과에서 점심시간까지의 일과생활은 동연령 집단으로 구분된 방 중심이라기 보다는 대부분이 연령 간 통합활동으로 이루어지는데 반해, 낮잠은 방 구성원끼리 잔다. 그런 까닭에 낮잠시간은 생체리듬을 회복하는 시간임과 동시에 방 중심의 독특한 유대감이나 소속감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다. 그리고 잠을 자기 까지 이루어지는 다양한 의례활동(이야기 들려주기, 친구에게 책 읽어주기, 체조, 교사의 마사지 등등)은 접촉적이고 민감한 상호작용을 통해 밀도 있는 관계가 형성되는 시간이다. 이런 관계적 특성을 알기에 아이들은 누구 옆에서 자는가가 매우 중요한 일이 된다. 교사 또한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있는 방아이들의

담임교사로서 애정과 관계를 좀 더 깊게 맺을 수 있는 시간이다. 그렇다면 이 시간이 교사들에겐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자.

2) “안 자면 미워”

바쁜 하루일과에서 아이들이 잠 자는 시간에도 교사들은 할 일이 많다. 휴식도 취하지만,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고 이후의 활동을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또한 공동육아 교사는 매일 각 어린이의 하루일과를 기록하는 날적이⁶⁾를 쓰는데, 주로 이 시간을 활용한다. 또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교사회의를 이 시간에 배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사들이 개인적으로 또는 동료들과 함께 하루일과의 흐름과 활동, 아이들의 상황에 대한 생각을 좀 더 깊이 있게 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여기에 낮잠으로 인한 침묵은 교사들에게 반성적 사고를 하게하는 시간의 기원으로 작용한다. 교사로서 복잡한 욕구가 있는 이 시간에 낮잠을 자지 않는 어린이는 밍기도 하다는 것이다.

<사례 8>

종선: 교사들은 그 시간이 쉬는 시간이고 교사들끼리 만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다른 시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지만. 그렇긴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선 방을 지켜야 되기도 하고, 그 안에서도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진달래: 사실 낮잠 시간이 되게 복잡해.

기린: 애들이 낮잠 들고 난 뒤에 교사에게 오는 유일한 정적인 시간인 것 같아요. 하루를 쉬어 가고, 좀 되돌아보기도 하고 그런 시간.

진달래: 그러니까 안자는 애가 밍지? 당연히.

기린: 어. 그러니까 속상해지지(웃음).

종선: 미안해라. 미운 마음을 갖는 나도 너무 미안하면서도 개가 너무 미울 때가 있는 거예요.(2010.08-14)

교사는 안 자는 아이에 대한 미운 감정과 미안함을 동시에 느끼는 복잡한 감정을 낮잠 시간에 경험한다. 이 복잡함을 아이들과 함께 낮잠을 잠으로서 잠깐 잊을 수 있는 날도 있다. 낮잠을 다 자고 깨어난 아이들이 다시 생기를 찾듯이....

하루일과 중 유일하게 정적인 시간인 낮잠시간은 교사들이 쉴 수 있고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인 동시에 하루일과의 증반인 시점에서 일과의 전후를 돌아보고 가능하는 시간이다.

6. 오후활동

공동육아에서 오후활동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낮잠 이후 오후간식을 먹고 주로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일컫는다. 방 단위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연령별 통합활동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연 령별 통합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은 대개 세시 절기와 관련된 활동(놀이와 노래, 전통무예, 염색, 요리 등등)인 반면 방 안에서는 미술, 조형활동들이 주로 이루어진다. 세시절기 활동은 교사들이 역할을 서로 분담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고 절기 특유의 종합적인 활동들의 연계성이 일정정도 확보된다. 반면, 방별 오후활동은 일반 유아보육기관에서처럼 주제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활동 간의 연계성을 교사가 치밀하게 염두해두지 않으면 교사 중심의 낱낱의 활동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오후활동의 연계성의 고리를 하루일과의 흐름에서 찾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6) 공동육아에서는 교사와 부모가 아이의 어린이집 생활과 집에서의 생활을 가능한 한 매일 작은 노트에 함께 기록하여 공유한다.

1) 하루 흐름의 순환성으로부터 단절된 오후활동

오후활동은 크게 세시와 절기를 누리는 문화적 시간⁷⁾과, 교사가 교육적 의도를 갖고 조직하는 시간으로 구분된다. 특히 방별로 이루어지는 오후활동은 교사의 의도만으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아이의 새로운 것에 대한 욕구와 맞물려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자칫 아이의 욕구를 놓칠 경우 결과중심, 평가중심의 교육활동, 기능적인 활동으로 치우치는 문제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사례9>

진달래: 교사가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활동....유일하게... 실내에서 하는 오후 활동은 교사가 아이들하고 하고 싶은 활동을 하는 시간.... 유일하게 교사가 조직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공동육아 생활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연결 짓는 세시절기, 놀이노래와 같이 문화적으로 누려야하는걸 나누는 시간, 교사의 도움과 전수가 필요한 활동을 나누는 시간이죠.

연구자: 진달래 말에 여러분 동의하세요?

기린: 교사의 교육적 의도가 많이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일반적일것은 아닌듯해요. 비중이 아이들에게 많을 때도 있거든요. 뭘 준비해 달라. 뭘 하자. 다른 걸 하자. 아이들의 요구가 많아요.....그런 걸 교사가 파악하고 교육적으로 끌어내려고 하죠. 그런 점에서 아이들의 욕구가 많이 살아 있는 시간이기도 해요.

.....

둘리엄마: 교사들이 신경을 안 쓴다고 하지만. 그래도 조합원(부모)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싶은 욕구 때문에.... 교육의 깊이보다는 다양함에만 쫓아가는 것 아닌가 싶은 점이 있죠.

.....

진달래:공동육아 차원에서 방향제시 목표제시가 없었다고 할 수 있죠.

스콜라 : 그러면서 동시에 부모의 시선, 평가가 집중되는 시간이기도 해요.....(2007.11-15)

오후활동이 하루일과의 흐름 안에서 살아나도록 순환적 연계성을 찾는 고리가 무엇인지를 오히려 단절된 오후활동의 모습을 통해 그 단서를 찾아 볼 수가 있다.

공동육아가 아이들의 자연적 체험, 건강한 생활체형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적 평가는 특히 부모님들의 시각에서 볼 때, 오후활동에 초점이 모아지고 그 만큼 교사는 이 활동에 민감해지면서 공동육아의 전체의 교육방향과 흐름에서 단절된 채, 다양하게 활동한 결과를 보여주지 중심으로 쫓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평가다. 또한 역사적으로도 오후활동은 공동육아를 상징하는 다른 일과활동에 비해 그 활동에 대한 방향과 목표를 확인하고 공유하는 과정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단절된 모습의 오후활동이 하루일과에서 그 흐름을 찾고자한다면 어떤 연계고리를 잡아서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먼 데 있지 않고 아주 가까이 옆에 있는 세시절기와 나

7) 세시절기는 1년을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계절로 나누고 다시 그것을 24절기로 나누어놓은 우리나라 전통적인 시간스케줄로서 이는 농경문화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세시절기문화에는 농동을 중심으로 풍습, 놀이, 노래, 춤, 음식, 이야기와 같은 풍부한 문화적 내용들의 총체성이 갖추어져 있다. 공동육아 교육자들은 이러한 세시절기의 문화적 내용과 자연주의적인 시간개념에 주목하여 공동육아 교육과정의 틀을 구성하고자 하는 의식이 있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 대부분의 공동육아 어린이집들에서 입춘, 설, 정월대보름, 삼월삼짇날, 단오, 유두, 추석, 동지 등의 세시절기 교육을 하고 있다. 하지만 세시절기가 일상화된 교육과정으로 되기까지는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그래서 공동육아 교사회 내에 세시절기를 연구하고 실천하는 '노래와 놀이' 교사연구팀이 있다.

들이가 연결 대상일 수 있다.

2) 하루 흐름의 순환성 회복

공동육아에서 이루어지는 오후활동의 배치 방식을 크게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활동별 배치로는 세시절기와 관련된 활동, 방별 활동이 있다. 연령별 배치로는 세시절기가 연령통합적으로, 방별활동이 방 중심의 동연령으로 배치된다. 시간별로는 세시절기를 일정한 요일별로 배치하고 그 나머지를 방별활동으로 배치한다. 이렇게 다양하게 배치를 했다하더라도 이 배치군들이 아이들의 경험적 측면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각각의 오후활동들은 단절된 부분들의 활동일 뿐이다. 즉 고정적 배치 이상을 못 넘는 한계가 있다.

<사례10>

.....

둘리엄마 : 진짜 갈등지점은 아이들의 흐름과 교사들의 의도성이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들이 행복하게 만나질 수 있느냐. 나는 오후활동의 핵심은 이것이고, 그것을 제대로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세시흐름의 철학적이고 근본적인 요소에도 맞닿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괴리가 있다. 오후활동이 단적인 예라고 생각해요.(07.12-15)

세시절기활동이라는 것은 교육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단지 전통이고 우리가 소중히해야 할 옛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만은 아니다. 세시절기의 흐름이 봄-여름-가을-겨울과 같은 자연적 흐름과 연결되고, 이러한 흐름은 아이들의 성장 및 생활리듬과도 조화를 이룬다는 판단에서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세시절기는 오늘날의 교육적 시간이나 생활리듬으로 재구성성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이다. 그렇다면 세시절기 활동은 새로운 활동을 시도하는 방별 오후활동과도 가시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차원에서도 통할 수 있는 흐름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시간의 수평축에서 오후활동이 확보할 수 있는 연계고리가 세시절기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오후활동의 여러 형태의 배치방식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시간대는 하루 중 반드시 오후인 것이다. 그런데 교사들의 왜 오후여야 되는가?라는 질문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하루일과의 순환적 구조의 틀인 나들이가 오전에 있기 때문인가? 이름을 오후활동으로 붙이기 때문인가? 그렇다면 하루일과를 수직적으로 순환하게 하는 나들이가 오히려 오후활동을 박제화 하는데 기여한다는 논리도 가능하다.

<사례10-1>

둘리엄마): 아이들한테는 그 오후활동이라는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아이들의 실제적인 리듬이라든지 정서라든가 그런 생체리듬하고 어떠한 관계를 맺는지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보고 싶다는 거고요.그리고 왜 오후시간이냐는 이를 태면 그런 거죠. (2008.03-04)

.....

소나무: 저는 제가 6, 7세반 할 때에는 미술놀이를 해도 활동을 밖에서 하거든요. 봄 같은 경우

8) 특별히 더 오후활동에 관심이 많았고 1차 연구과정에서 있었던 오후활동의 연구방향의 오류를 예리하게 짚어낸 교사이다.

는 마당에 꽃이 많이 피잖아요. 미술을 밖에서 많이 하거든요, 오후에 터전에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전에 한번 나들이 안가고 우리 반만 남아서 마당에서 우리끼리 조용히 그림을 그린다거나 그렇게 하거든요. 활동이라는 것이 오후에만 꼭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가 오전에는 무조건 나들이 가야하고, 바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거꾸로 할 수도 있는 건데 너무 그런 것에 얽매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교사가 굉장한 생각과 아이들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하기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오후활동이 방으로 문 닫고 들어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들어가는 활동으로 자꾸 변해가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처음에 공동육아 할 때만 해도 그러지는 않았던 거 같아요..... (08.07-11)

하루일과는 시간-공간적으로 결코 고정된 틀이 아니다. 오히려 아이들의 욕구나 교사의 교육적 의도의 일치에 따라 달리 배치할 수도 있는 움직임은 흐름이다. 꼭 이 시간대에 이 공간에서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교사로 하여금 오히려 폐쇄적 시·공간 개념을 갖게하고, 그 결과 단절된 활동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안정성을 확보할 만큼의 일과구성과 그 일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일과를 구성하는 능력 사이에서 균형을 발휘한다는 것은 결코 쉽게 획득할 수 없는 교사의 일과운영 능력이다. 하지만 오후활동의 오후라는 시간개념에 초점을 두지 말고, 이 활동을 왜 꼭 이 시간에 해야 하는가? 그리고 왜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한다면 오후활동을 시·공간적으로 흐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과와 관련해서 일과의 핵심이 무엇인가?라는 교육본질적인 질문을 통해 오후활동의 배치를 사례에서 처럼 오전과 바깥공간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나들이의 시·공간적 배치의 변화와 곧바로 맞물리기 때문이다. 즉, 오후활동의 시·공간적 배치를 바꾼 바로 그날의 나들이의 일과활동으로서의 핵심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과배치는 시간대에 따라 여러 활동을 병렬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아닌 살아있는 유기적 배치이다. 이런 점에서 하루일과는 일 년 열두 달 꼭 그렇게 살아야하는 고정된 틀이 아니라 아이와 교사들의 삶의 욕구와 의지가 흐르는 틀이며 살아있는 교육과정을 담아내는 그릇인 것이다.⁹⁾

요약하면, 단절된 오후활동을 순환하도록 도울 수 있는 일과는 세시절기와 나들이이다. 즉, 하루일과에서 시간의 수평적 차원에서 어제의 경험과 오늘의 경험으로 순환하게 하는 연결고리(구조)가 세시절기라면 **오늘 하루**라는 시간의 수직적 차원에서 순환하게 하는 구조가 나들이라고 할 수 있다.

7. 자유놀이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하루일과에서 자유놀이는 세 번 이루어진다. 아침에 어린이집에 와서 아침모듬을 하기 전까지, 점심먹고 낮잠 자는 사이, 마지막으로 오후활동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자유놀이가 이루어진다. 보통 일반 유치원 하루일과에서는 자유놀이와 비슷한 일과활동이 자유선택활동(놀이)인데 아침에 50분에서 1시간 30분 정도 기관의 철학에 따라 운영된다. 그리고 오후에 30분 정도의 실외놀이가 이루어진다. 일반 어린이집의 경우

최근 들어, 오후에 자유선택활동을 한 번 더 하는 일과를 구성하는 어린이집들이 생겨나고 있다. 어떤 형태이던 간에 일반 교육기관의 놀이는 실내와 실외가 분명하게 구분되고 실내 자유선택활동은 놀이 그 본연의 모습 자체라기 보다는 놀이를 통한 학습활동과 더 연관이 깊다는 점에서 실외놀이가 구분된다. 그러나 공동육아는 하루일과의 시작-중간-마무리를 관통하여 이루어지는 세 번의 놀이 모두 실내외를 넘나든다. 공동육아 교사들은 자유놀이에서 자유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그 질문부터 던지기 시작했다.

1) 어떤 자유인가?

자유놀이 이름이 왜 꼭 자유놀이여야 했을까?라는 질문과 정말 자유를 주고 있는가? 과연 얼마만큼의 자유가 일과생활 속 놀이에서 부여될 수 있을까와 같은 질문들이 생성되었다. 왜 굳이 자유놀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가?하는 질문에는 다음의 두 가지 의문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 공동육아의 하루일과 중에서 자유가 자유놀이에만 부여되어 있느냐? 또는 공동육아 아이들이 다른 시간에는 놀이를 자유롭게 못하느냐의 질문이다.

<사례 11>

들리엄마: 보통 보면 엄밀히 말하면 자유놀이라는 것은 자유롭지 않아요. 교사가 일단 일정부분 제약하고 들어가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냥 최소한으로 놀아봐라! 그러는 거죠.

호랑이: 근데 그것은 최소한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라는 생각이 있고 그렇지만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놀 수 있는데 그게 자유냐 아니냐는 또 다른 문제인데.....

스콜라: 교사입장에서의 자유놀이예요. 2층도 못 올라가게 하고.....

.....

진달래: 그런 자유가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면 털어야 되죠..... 최대한 자유롭게... 하지만 안전은 보장하고 질서는 잡히고 그리고 골고루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그러니깐 그런 것만 보장이 되는 선에서는 최대한 계속 털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깐 기준에 가지고 있는 틀들을.

호랑이:..... 어쨌든 공동체 집단생활이잖아요. 집단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규칙과 같은 흐름이 있는 반면에 자유놀이 시간이라는 것은 그래도 그 틀 안에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조율하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일과라는 입장에서 아이에게 오는 의미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숨이 좀 트이고 조금 더 자기를 잘 표현할 수 있고, 교사의 체제 없이 아이들과 훨씬 더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의 의미로 가는 거 같아요.(2009.03-04)

교사입장에서의 제한된 자유가 주어진다는 상황도 있는데 그래서 이 상황이 구성원들에게 불편할 정도라면 제한된 자유는 털어버리고 보다 많은 자유를 확보해주기 위해 기존의 틀을 변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기술한 오후활동에서 일과의 흐름 안에서 오후활동의 배치를 흐르게 하기 위해 기존의 고정된 틀을 수정해야 하는 것처럼, 일과의 흐름 안에서 자유놀이를 제 자리에 위치지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유와 최소한의 체제 사이의 거리를 늘 조정하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

2) 열기-중간-닫기를 관통하는 하루흐름으로서의 자유놀이

자유놀이를 연구하면서 연구자와 교사들은 하루흐름으로서의 자유놀이를 볼 필요성을 느

9) 이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두 어린이집에서 오후활동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변화를 시도하였다. 한 어린이집은 이 연구가 시작 되기 전, 이미 변화를 시도하고 있었고 나머지 한 어린이집은 연구 후반기에 시도하였다. 서로 다르게 변화를 시도한 두 어린이집의 사례를 교사들의 오후활동과 관련된 글쓰기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끼게되었고, 하루 세 번 이루어지는 자유놀이가 하루를 관통하면서 다양한 변이를 가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또한 자유놀이를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유와 최소한의 교사의 개입과 제재가 하루일과의 시작-중간-마무리 시점의 자유놀이 마다 그 양상이 다르다는 것을 감지하게 되었다.

교사들과의 토의에 따르면, 아침 자유놀이는 탐색이고 점심 먹고 하는 자유놀이는 교사의 큰 개입없이 또래끼리 노는 특징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자유놀이는 자유를 최대한 발휘해서 노는 시간이다. 동시에 너무 들떠 있고 정리되지 않은 모습을 부모들에게 목격 당하는 난감함도 교사로서 느끼는 시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를 교사들과 다시 한번 더 정리해보았을 때는 이 세 자유놀이를 한마디로 규정하기 어려운 복잡함이 드러났다. 특히 두 번째, 세 번째 자유놀이가 그러했다.

① 아침 자유놀이 : 기다리는 시간

아침 자유놀이는 하루일과의 시작시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린이 개인적 특성이 어린이집에서 무르익을 수 있는 충분한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

<사례 11-1>

.....
 풍선: 오전 시간에는 작은 아이들이 소그룹으로 있어서 관계가 굉장히 부드럽고 아이들 간의 자연스러운 배려라든가 7살부터 3살 어린아이까지 다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안에서 교사의 개입이 전혀 없이 큰 아이로서의 역할과 작은 아이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발생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소그룹으로 있으니까. 놀이도 훨씬 동적인 놀이든 정적인 놀이든 편안하게 열고, 그래서 일찍 오는 아이들은 꼭 일찍 오고 싶어 하고,

둘리엄마: 근데 오전 시간이 뭐가 다르냐 했더니, 오전에 보면 그래도, 아무래도 아이들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 오전에 자유놀이가 활발하지가 않다는 것 속에서 애들이 아까 얘기한 것 속에서 아이도 자기 신체리듬이 제대로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들. 그 다음에 아이들 놀이가 필요하면 친구가 있어야 하는데, 자기가 마음에 맞는 친구를 만날 때까지, 아니면 그 놀이에 맞는 친구를 만날 때까지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점심시간 되면서 좀 더 풀리고 확장되고. 나중에는(2010.08-14)

아침 자유놀이 시간에 아이들은 자신의 신체리듬이 되살아나는 것을 기다리고, 친구를 기다리며 노는 시간이다. 어린이 개인의 신체리듬과 욕구는 정적으로 노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동적으로 노는 아이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놀이욕구를 위해 교사들은 어린이집 안팎을 개방한다. 놀이에 대한 욕구와 양태가 다양하더라도 그 강도는 부드럽고 평안하여 아이들이 맺는 관계양상 또한 상호 배려적이라는 것이다.

② 중간 자유놀이 : 감질 나는 시간, 짧고 굵게 조직적으로 논다

어린이 입장에서 볼 때, 자유놀이를 방해하는 요소가 가장 많은 시간이 중간 자유놀이 시간이다.

<사례 11-2>

둘리엄마: 점심 자유놀이 시간의 가장 큰 단점은 자꾸 끊겨요. 중간에 이빨 튀어라, 무슨 약 먹어라. 그래서 아이들이 그 시간이 참 감질 나는 시간 같아. 느낌에.

풍선: 근데 정말 끊어서 가끔 보면 되게 미안해서 낮잠을 채우고 싶지 않고 그냥 놀리면 어떡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한테는 그 시간이 제일 재미있는 시간인 것 같아. 오전, 오후에는 아이들이 다 없지만 그 시간에는 아이들이 다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엄청 재미있고 그 짧은 시간에 놀이를 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모습을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둘리엄마: 짧더라도 아주 재미있게 노는 그런 모습 많이 봐요.

진달래: 놀이를 조직해서, 그 때는 개별 놀이 별로 안 하잖아요. 그 놀이를 조직할 수 있는 아이들은, 조직된 어린 아이들은 밥을 빨리 먹어. 정말로. 후다닥 먹어. 그러면 한 20분. 밥 차린 지 20분 만에 밥을 다 먹고 한 시간 정도 놀죠. 그런 애들은.

..... (2010.08-14)

점심과 낮잠 사이에 이루어지는 자유놀이는 시간이 길지 않은데다 끊기는 특성이 있는데 이 특성을 아이들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아이들은 오히려 짧지만 굵게 노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즉, 앞뒤 일과에서 놀이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 놀이를 조직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시간이 중간 자유놀이 시간이다. 그리고 이 시간에 교사들은 상 치우기, 양치지도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교사의 개입의 정도가 적은 시간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자율적으로 노는 시간이기도 하다.

③ 마지막 자유놀이: 치열하게 노는 시간, 복잡하고 어수선한 시간

오후활동 이후, 이어지는 자유놀이는 시간이 길고 놀이의 농도가 치열하다는 특성이 있다.

<사례 11-3>

개구리: 그런데 아이들이 언제 자유놀이에 깊게 빠지는 시간인가를 보면 실제로 하원하기 전에 하는 자유놀이 시간. 그래서 아이들이 하원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때는 교사가 무엇을 해야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에게 자유롭게 놀아라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시간에는 더 재미있게 놀려고 해서 안 가려고 하는 시간이라서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조금 더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거든요.(2009.03-04)

한편, 하루일과의 마지막 일과이기 때문에 시차제로 출퇴근 하는 교사들이 점차 퇴근을 하기 시작하고,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오는 시간이다. 이러한 요인들이 아이들 놀이에 영향을 미친다. 하루 세 번 이루어지는 자유놀이는 그 양상과 농도가 서로 다르게 복잡하다. 그런데 아이들은 이러한 특성을 알고 있고 그러한 특성에 따라 놀이를 조직하는 능력을 발휘하였다. 자유놀이의 양상과 농도의 복잡성 안에는 일과 흐름의 맥락 외에 아이 개별적인 특성도 작용을 하고 있었다.

<사례 11-4>

풍선 : 오후에는 보면 교사가 퇴근을 하는 시간이잖아요. 몇 명이. 그래서 사실 교사들은 더 긴장하고 어려운 시간인 것 같고요. 오히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엄마가 오기 시작하니까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힘든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일찍 와서 문제인 경우도 있고, 한 명이 오는 걸 딱 보면 그게 다섯 시에 온 엄마가 있으면 그 때부터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놀이시간이고 즐거운 시간인 아이들도 있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고. 좀 그거에 대해서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개구리: 아이들이 놀이를 하면서도 엄마가 왔을 때 받는 충격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아이들. 남 녀를 떠나서 성향에 따라서 드러나는 아이들이 간혹 있죠. 개별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2010. 08-14)

공동육아 부모들은 아이를 데리러 와서 바로 가지 않는다. 아이들이 더 놀다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기 때문이다. 부모들 또한 아이들의 놀이 의지에 대해 허용적이고 다른 부모들과 함께 아

이들이 놀고 있는 마당에서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즐긴다. 아침에 부모를 배려하는 공간이 있었던 것처럼, 저녁에 부모를 수용하는 공간은 마당이다. 그런데 엄마나 아빠가 일찍 온 어린이는 안경감을 느끼면서 놀이를 할 수 있지만, 아직 부모가 오지 않은 어린이의 경우는 정서적으로 불안해하거나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부모의 존재여부에 따라 아이들이 느끼는 불안한 정서는 동일하지 않고, 개인의 기질과 성향, 남녀의 성차와 같은 여러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공동육아 부모들은 아이들을 데리러 올 때, 자기 아이에게만 눈맞추지 말고, 여러 아이들에게 눈과 귀를 맞추고 대화할 것을 실천수칙으로 공유한다.

보통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6:30 정도면 일단 마당에서 놀던 놀잇감을 정리하고 실내에서 놀도록 한다. 그래도 더 마당에서 놀고 싶어하는 어린이에게는 자기가 논 놀잇감을 부모와 함께 치우고 가도록 한다. 이렇게 마무리되는 하루일과의 끝은 내일의 첫 호흡을 잇는 다리이다.

8. 전이과정

일반적으로 전이활동이라 함은 하나의 교육활동을 끝내고 다음 활동으로 잘 넘어가기 위해 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활동의 목적은 아이들이 너무 산만하지 않게 다음 활동을 잘 하도록 흥미를 유지하고 지금이 어떤 시간이라는 것을 각성시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각각 활동목표와 내용이 분명한 일과활동 측면에서 볼 때 전이활동은 그 존재가 분명하지 않은 특성이 있다. 보통은 이러한 무정형성을 종소리나 일정한 음악 및 손유희로 명료화시킴으로써 전이시간의 무존재성을 각인시키기도 한다. 그런데 공동육아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무정형성 자체를 탐색하지 않고는 전이에 대한 개념을 구성할 수가 없었다.

공동육아에서의 하루일과가 아침열기-자유놀이-아침모듬-나들이-점심 먹기-자유놀이-낮잠 자기-간식 먹기-오후활동-자유놀이-하원으로 이루어진다면 이 개별일과활동을 잇는 회로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전이과정이다. 보통 어린이집에서 하나의 활동이 일시에 시작하고 끝나는 것과 달리, 공동육아는 개별적 시작과 끝이 융통적으로 보장되는 특성이 있어서 이 전이과정은 보다 더 복잡한 양상을 띤다. 그래서 그 어떤 일과보다도 전이과정에 대한 논쟁이 치열했다. 전이과정으로 정리될 때 까지 전이활동-전이시간이라는 개념을 혼용하다가 전이과정으로 정리가 되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생성한 전이과정에 대한 실천적 개념은 전이과정의 외현적 특성과 심층적 특성에 따라 정리되었다.

1) 전이과정의 외현적 특성

전이과정의 외현적 특성에 의하면, 전이시간은 교사와 아이의 시간감각의 차이에서 그 시간적 특성이 발생하며 이 차이를 교사들은 잔소리로 채우는 경향이 있음이 드러났다.

① 교사와 아이의 시간 감각의 차이

전이에 대한 우리의 토론은 한 교사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었다. 교사는 하나의 일과활동을 진행하기 전과 마무리 즈음에 자신의 시간 속도감이 빨라진다고 말했다.

<사례 12-1>

누룽지 : 그런데 늘 제가 다음 시간을 준비를 하는데 나들이 가서도 나들이 갈 때에는 빨리 올라가야지 하고 올라갔다가 나들이가면 언제 내려가는지 계속 시계를 보고 있고, 밥 먹으면

서는 청소할 생각, 청소하면서는 놀잇감 생각 등 다음 시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그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2008. 05)

이러한 교사의 질문에 대해 연구자는 신선한 충격을 받았고 교사들은 이것이 전이시간의 특성임을 감지하였다. 모든 일과에서 다음의 활동에 대한 생각으로 교사의 시간감각은 미래시점을 염두에 두고 있는 반면, 아이들은 현재중심적이다. 이러한 시간감각의 차이는 한 활동을 마무리하고 다음활동에 접어들 때, 속도의 차이가 더 크게 발생하게 된다.

② 잔소리가 많아지는 시간

시간 속도감의 차이가 교사와 아이사이에서 벌어질수록, 교사들의 마음은 다급해지고 그만큼 아이들을 재촉하게 된다.

<사례 12-2>

누룽지: 저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부터 쓴(관찰기록) 거잖아요. 노래시작부터 된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보면 잔소리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준비를 해야 되고 아이들은 그 동안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야기 들으니까 제가 점심때 기록을 하고, 전사를 하고 나서 다른 시간들을 보니까 다른 시간 때 잔소리 엄청 많은 때가 있어요. 나들이 가기 전, 점심 먹기 전, 낮잠 자기 전, 마당놀이 하거나 하고 정리 하라고 할 때, 이때는 계속 잔소리인 거예요.....(08-04)

전이 시간에 발생하는 시간 속도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들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잔소리가 부쩍 더 많아진다는 것이다. 이처럼 교사가 다급해지고 잔소리가 많아지는 특성이 전이시간을 감지할 수 있는 외현적 특성이려면 전이시간 자체의 심층적 특성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사례에서처럼, 전이과정의 외현적 특성을 교사들이 인지하게 되면 교사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반성적 성찰의 계기를 갖는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교사들로 하여금 반성만 하게하는 도덕적 부담을 벗어 날 필요가 있다. 전이과정의 심층적 특성에 대한 인식은 도덕적 부담에서 벗어나, 좀 더 의연하고 담담하게 전이과정을 살아낼 수 있게 하는 힘을 **교사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다.

2) 전이과정의 심층적 특성

전이과정의 심층적 특성에는 ‘존재하는 시간: 존재하지 않는 시간’, ‘있으면서 없고 없으면서 있는 시간’, ‘다중적 시·공간의 중첩적 구조’라는 실천적 개념이 생성되었다.

① 존재하지 않는 시간 : 존재하는 시간

공동육아의 하루일과에서 전이시간의 존재성을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았다. 일과활동과 활동 사이에 있는 시간으로는 존재하나 어떤 가시적 유형의 활동이나 행위(특정음악, 종소리, 손유희와 같은)로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례 13-1>

스콜라:현장의 교사들의 입장에서 전이시간? 이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전이시간에 대해서 따로 떼어서 이야기를 해야 하나? 그것은 마치 다음 활동을 가기 위한 교사의 준비이기 때문에 마치 앞 놀이 뒷 놀이 전체를 다 포괄해서 놀이라고 하듯이, 본 놀이만 놀이라고하지 않는 것처럼 나들이 프로그램은 나들이 자체만을 나들이로 보지 않아야 하지 않느냐를 문제 제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전이시간은 엄밀히는 없는 거예요. 시간으로 잡을 수 없는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 이예요.(2008.07-11)

일과활동의 전후를 총체적인 맥락의 흐름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전이시간이라는 언표 자체가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것이다. 전이시간의 실존하지않는 추상성을 어린이 입장에서 탐색해보니, 그 존재성은 더욱더 파악하기가 어려워졌다. 그래서 무엇을 전이시간으로 봐야할 지는 우리들에게 큰 교육적 질문이 되었다.

<사례 13-2>

.....
야자작: 저는 전이시간을 보는데요. 어디서부터 전이시간으로 봐야할 지부터가 헷갈리는 거예요. ..보면 아이들이 놀다가 그 놀이가 다르게 변하는 사이도 나름의 전이인 것이고, 보면 하루 종일 중에 그 상황이 아닌 상황이 없는 거 같더라고요.

.....
야자작: 그리고 보면은 대개 그 시간은 제가 생각하기에 교사의 의도가 정말 많이 들어간, 교사에게는 의미 있는 시간이지만 아이에게도 의미가 있는 시간일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교사가 의미를 두는 것만큼 아이들이 의미를 느낄까? 아이들도 그 의미를 갖고 같이 할 수 있게, 스스로 할 수 있게, 하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2008.07-11)

전이시간을 어린이 입장에서 관찰한 교사는 교사인 자신들에게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시간일 수 있지만, 어린이의 활동과 놀이는 진행형이어서 어디서 전이를 잘라서 볼 수 있는 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아이마다 그 진행상황 또한 다 다르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이시간은 어린이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시간인가? 존재한다면 어떤 의미인가라는 질문을 재구성한다.

② 있으면서 없고 없으면서 있는 시간

전이시간의 아이들의 모습을 관찰하자, 이 시간을 아이들이 독특하게 의식하고 있음이 포착되었다.

<사례 13-3>

스콜라: (관찰기록을 보며) 여기 기린선생님이 쓰신 것 중에 이런 것이 보이는데 “활동시간 속에 잠깐 동안 맛보기로 눈을 피해서 이루어지는 놀이는 아이들 놀이에서는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시간이다 이때 교사와 아이들의 충분한 교감과 스킨십이 이루어져야 신뢰성이

충분히,..” 아무튼 그 틈새를 노려서 아이들이 노는 것을 그런 것으로 읽혀지거든요. 그러니까 전이시간 자체도 아이들은 반짝반짝 빛나서,..

연구자: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아이들이 그 사회적 시간의 의미 부여를 안다는 거예요. 의식을 한다는 거야. 그렇게 보면 아이들한테도 전이시간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둘리엄마: 이를테면 교사나 아이들이 호흡을 맞추는 시간인지 아니면 교사가 주도한다고는 하지만 아이의 흐름에 따라서 끌고 가는 시간인지 그런 것조차도 새롭게 보이지 않을까?

스콜라: 아이들이 조금 앞서가는 아이와 조금 천천히 오는 아이들의 완급을 조절해가는 시간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
스콜라: 전이과정. 시간보다 과정이 좋네요.(2008. 07-11)

한 교사의 발견에 의하면 이 시간에 아이들은 눈이 반짝반짝 빛나서 노는 시간이라는 것이다. 없을 수도 있는 틈새를 캐내서 노느라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시간이다. 아이들은 이 시간의 사회적 의미를 이미 간파하고 있다. 그래서 교사로서는 조금 앞서 가는 자신과 천천히 가는 아이 사이의 속도의 완급을 조절해 가는 시간이고 아이들로서는 스스로의 자유와 질서를 잡아가야 하는 등 자기통제를 할 수 있는 틈새 시간이기도 하다. 이 복잡한 상황을 교사들은 전이 시간보다는 전이 과정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새롭게 해석된 전이과정이라는 개념은 교사들에게 전이과정에 대한 교육적 큰 질문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주었다. 여기에 연구자의 해석을 더하면, 전이과정은 ‘있으면서 없고, 없으면서 있는 시간’이다. 여기서 있으면서 없고 없으면서 있다는 부정의 변증법은 교사로 하여금, 이 둘 간의 미묘한 균형을 잡도록 요구한다. 만일 지나치게 ‘있는 시간’으로 환원하면 도구(시계, 음악, 종소리 등등)적 수준의 통제가 만연할 것이고, 지나치게 ‘없는 시간’으로 환원하면 통제 불가능의 방임적 분위기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있으면서 없고 없으면서 있는’ 부정의 변증법은 시공간의 중첩성으로 구성되는 전이과정의 또 다른 특성과 관련이 있다.

③ 다중적 시·공간을 소유한 전이과정

있으면서 없고 없으면서 있는 모호하고 복잡한 전이과정을 교사와 어린이의 체험의 차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시간을 살아내는 삶의 방식을 채취할 수 있다.

<사례 13-4>

호랑이: 예를 들어, 점심을 일찍 먹고 나오는 아이는 그때부터 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그 다음부터 전이활동 시간이에요. 자유놀이를 포함한 활동시간이고,.. 그 대신 시간으로 보면 교사는 마지막 아이가 먹는 시간까지 점심시간인거죠. 그렇게 여러 가지가 겹쳐 중첩적으로 혼합적으로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
호랑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전이의 과정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질서와 자유를 충분히 부여하지만 그걸 충분히 자기가 확보하고 있는 아이들만이 그 시간을 잘 지낼 수 있다. 라는 것이 들어와요. 할 일을 밀쳐놓고 하기도 하는 애들도 있고,.. 그런 것을 보면 그 시간 안에 아이의 행위는 잠깐의 머뭇거림이지만 내면은 복잡할거란 말이에요.

연구자:...그렇게 보면 전이시간도 보이지 않는 엄청난 교사와 아이의 상호 작용의 결과라는 거예요.

호랑이: 교사가 준비 중일 때 굉장히 섬세하게 그런 과정이 되게 필요한 시간이 전이과정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

새 봄: 그렇게 각각의 교사가 관리할 수 없는 다중적인 시간 같은 것은 교사의 역할이나 시간 배치, 시간의 약속 이런 것들을 교사 간에 협력하고 하면 되는 거 같아요.

개구리: 교사의 협력이 실제로는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

스콜라: 협력과 더불어 (머리 이쪽저쪽을 가리키며) 교사는 눈이 여기도 있어야 하고,, 기발한 전략이 난무하는 시간들인 거 같아.(웃음)(2009.03-04)

.....

공동육아의 일과와 일과 사이에 주어진 전이과정은 고정된 상태도 아니고 깔끔하고 단순하게 A활동에서 바로 B활동으로 넘어가는 사이 시간도 아니다. 그 이유는 공동육아 모든 일과활동이 시-공간적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활동이 끝나는 개별 유아가 갖고 있는 시-공간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하나의 일과가 끝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다른 일과를 시작하는 순간 까지 교사가 마주하는 시-공간은 다중적이다. 그리고 활동이 일찍 끝난 어린이의 경우, 이 시간에서 자기가 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자유도 있다. 그러나 놀더라도 장난감도 치우고 다음 활동을 위한 준비도 해야 하는 등 진행 상황을 파악하며 놀아야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유와 질서 사이를 통제하는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 복잡한 상황을 아이 또한 살아내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복잡한 상황을 한 교사가 여러 아이들과 함께 물 흐르듯이 살아내려면 다중적 시-공간 관리를 위해 다른 교사와 함께 협력해야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효율성의 측면에서 볼 때, 공동육아의 전이과정은 길고 복잡하다. 짧고 스피디하고 단순한 전이과정이 교사가 의도한 활동을 별 다른 방해요소 없이 수행해 가는데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공동육아가 이러한 비효율적 전이과정을 소유한 데는 교육의 목적에 대한 공동육아 특유의 이념적 철학과 문화적 특성이 분명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¹⁰⁾

교사들이 내리는 결정과 실천은 그들의 세계관에 의해 유도된다. 교육과 학습의 실용적 이론으로 작동하는 교육적인 세계관은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 문화는 교실과 학교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하지만 세계관이 교사, 운영자, 학부모, 정책입안자들에게 상황과 모든 가능성을 보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도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가정, 신념, 가치를 문화적인 매듭이라고 부를 수 있다(Ben Madel, 2001).

<사례 13-5>

들리엄마 : 최근에 우리지역에 서울형 어린이집 자율장학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교사들이 전이시간에 대한 사례를 조사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교사 한명이 대표로 참가를 하는데,, 거기서 전이시간에 뭐 하나 하고 하나까 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이 손유희를 한다는거예요, 우리 어린이집은 무슨 손 유희하나고 몰랐대요. 근데 우린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사가 자기가 도대체 전이시간에 대해서 뭘 말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난감해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에서 전이과정을 잘 보내는 교사의 사례하고 우리가 여기서 논

의했던 자료를 갖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가서해보면 어떻겠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다녀와서 하는 말이 다른 어린이집 교사들이 '세상에 그런 전이시간이 어디 있는냐'고. 신기해서 우리 어린이 집에 와보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2010.08-14)

서울형 어린이집 00지역자율장학 모임에 소속된 어린이집들의 전이시간에 대한 사례는 “손유희”였다. 즉 전이시간에 대한 그들의 실천적 또는 일상적 개념은 “손유희”라는 단 하나의 언어로 표상되었다는 점을 우리는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전이시간이란 손유희를 하는 시간이라는 명제는 전이시간이 무엇이며, 우리는 왜 손유희를 해야만 하는가에 대해 스스로 질문할 수 없도록 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것은 하나의 문화적 매듭으로서, 일과는 당위적으로 던져져있는 것이고 우리가 구성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전제와 믿음을 우리에게 무의식적으로 형성하게 한다.

IV. 공동육아 하루일과의 교육적 의미

공동육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매일의 삶의 체계로서 하루일과의 심층적 의미는 각 일과활동의 실천적인 개념들을 공통적으로 관통하는 줄기를 통해서 구성할 수 있다. 지금까지 탐색한 각 일과활동에서 공통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배경적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는 크게 자유와 질서의 문제, 개인과 집단의 문제, 그리고 생생한 삶의 문제였다. 이 세 주제는 공동육아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교육철학적 주제이다.

맥락이라는 말을, 물리적·문화적·사회적 환경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뜻으로 재정의 한다면 개인과 맥락은 서로를 정의하며 서로에게 정체성을 부여한다(Strozzi, 2001). 그런 점에서 이 세 주제는 개인과 맥락 사이에 존재하는 공동체 차원의 하루일과에 정체성과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적 언어이다.

1. 자유와 질서가 상호 침투, 교섭되는 삶의 그물망

공동육아 구성원들 특히 부모와 교사들은 어린이가 누릴 권리로서 자유에 대한 소망과 의지가 강력하다. 이러한 자유에 대한 의지는 각 일과활동에 두루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앞의 일과 탐색과정에서 잠정적으로 볼 수 있었다. 점심시간에 개인의 욕구에 따른 자유를 어느만큼 인정하고 보장할 것인가? 자유놀이에서 아이의 놀이에 대한 자유를 얼마만큼 확보해줄 수 있는가? 오후활동에서도 개인의 학습욕구와 특성, 전이시간 조차도 아이 스스로 조율할 수 있는 자유를 확보해줄 수 있는 시간인가? 이러한 질문과 교육적 고민은 어린이가 개인적으로 누릴 자유의 최대치와 기관이나 교사의 통제의 최소치 사이에서 공동체가 확보할 수 있는 자율적이기도 조화로운 질서에 대한 것이었다.

<사례 14>

.....

호랑이: 그래서 저는 더욱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부모들이 (어린이집)만들 때 자유로운 아이기길 바랐잖아요. 교사들도 그러길 원했어요. 모든 것이 자유롭게, 뭐든지 자유로웠어요..... 물론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자유와 방종 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개념이 우리 안에, 스스로에 많이 없었다고 느끼게 됐어요. 그럼 어떤 것을 자유라고 하

10) 레지오에밀리아 교육자들은 “학교생활 동안 종이나 소리로 신호하는 일은 없다. 어린이들은 활동이나 게임을 끝내고 싶을 때 자유롭게 끝낼 수 있으며, 끝내는 대로 집단에 참여한다.”라는 표현으로 자신들의 융통적이면서도 자율적인 일과를 설명하였다.

느냐, 내면의 자유라고 하느냐는 말이죠. 질서 속의 자유일 때요. 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 그런 예를 들고 싶어요. 하루아침에는 안 되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그 다음에 뭘 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알게 하는 게 자유인가 그런 것들,,, 근본적으로 자유로움이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자유를 원하는지 그런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연구자: 그런 면에서 결국은 교사든 아이든 우리가 책임과 자율과 자유를 어떻게 생각하고 실천하느냐가 일과의 흐름과 강도와 교사 개입의 형태를 다 다르게 할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
돌리엄마: 그래서 그런 규칙과 자유, 질서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정말 그 규칙이 우리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는 규칙인지 아니면 우리를 더 옭아매는 규칙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동육아에서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되는 그러한 규칙이 되고 질서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너무 자유롭게 살다가 조금 질서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 규칙이나 질서가 즐겁지 않은, 자율적이지 않고 타율적인 규칙과 질서로 잘못 나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해요. (07.06-)

우리가 원하는 자유는 더 이상, 방종도 아니고 낭만적으로 극대화된 자유가 아니라 공동생활을 하는 현실적 조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자유이다. 즉, 내면의 힘이 갖추어진 자유, 질서속의 자유, 오랜 시간 몸에서 밴 자연스러운 자유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규칙과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으로서의 즐거운 질서와 자유인데, 즐겁지 않은 규칙 즉 타율로서 규칙을 해석하고 구성하는 문제점도 발견된다. 따라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촘촘하게 논의하고 해석하지 않으면 불편한 규칙과 버거운 자유 사이에서 혼돈을 거듭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재 공동육아가 향유하고 있는 자유의 역사적 지점이다.

한편, 자유와 질서 간의 갈등과 조정은 하루일과라는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는 교사와 아이들과의 관계성에서 순간 순간 교육적 판단을 할 때 고민의 대상이다. 그러나 교사가 늘 자유와 질서 간의 조화를 이루는 매끈한 일과생활을 가져갈 수는 없다. 확실할 때보다 불확실할 때가 훨씬 많다. 갈등, 불일치, 정서적 어려움, 자율성, 가능성 등등의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자유와 자율과 질서 사이에서 상호침투하고 교섭하는 과정으로 일과는 이루어진다. 이러한 실천적 과정 때문에 자유에 대한 생각도 변화하고, 자유가 생산되고 재구성되는 일과생활 역시 고정적이지 않는 흐르는 삶의 체계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규격화될 수 없는 일과생활의 생성성을 통해, 자유의 신체성을 학습할 수 있다. 자유란 완벽한 언어로 표현되는 관념의 세계가 아니라, 삶의 장면에서 거친 수준에서라도 실천되는 즉 몸으로 수행하는 실천성인 것이다.**

<사례 14-1>

연구자 : 큰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일과를 이야기 할 때, 아이들의 자유인가? 아니면 운영을 위한 것인가? 이 큰 대 주제는 사실 소주제마다 다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논의를 할 수 있었죠.... 일과를 연구하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일과에 대한 생각은 늘 변화가 가능하다. 그것은 고정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 배웠어요. (09.03-04)

진달래: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한테 자유를 주는 순간 교사도 자유로워져요. 진짜로. 그래서 삶이 자유로워져. 자기가 변화하더라는 거지. 교사가. 아이한테 자유를 주겠다는 것은 이념적인 거잖아. 이상, 머릿속 이론적으로 더 귀여지. 근데 그렇게 하면 끌어오려니까. 싫어하니까 망가지 코 빼서 오듯이 힘든

니까 그럼 이견 안 맞는 것 같다고 왔는데... 그 다음에 교사의 자유로움이 훨씬 더 커지더라는 거죠. 그거는 경험 속에서 나오는 것 같고. (2010.08-14)

자유란 자유로운 정신의 문제이기 이전에 자유로운 신체의 문제이다. 스피노자는 “정신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해 우리가 이야기하거나 침묵한다고 믿는 사람, 정신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우리가 행동한다고 믿는 사람은 눈을 뜨고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라며 자유의 신체성(고병권, 2007, 재인용)을 간파한다. 자유의 신체성은 곧 삶 속에서의 실천적 자유를 의미한다.

자유를 실천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세계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절대적인 지식체를 확고히 하여, 회의하지 않는 것과는 다르다. [자유와 두려움]이라는 책에서 정신분석자 Erich Fromm(1942)은 “확실성에 대한 강렬한 요구”를 “긍정적인 자유” 그리고 자발적으로 행위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유, “이성적 회의”를 배제하지 않은 자유와 대비시켰다. 긍정적인 자유를 경험하고 있는 인간, 성인, 그리고 어린이는 자유롭게 질문하고 불확실성을 환영한다. 자유는 “알지 못하는” 것에 구애받지 않고 확실한 지위에 도달하려는 압력에 저항하는 것이다(Dahlberg, Moss and Pence, 1999, 재인용).

공동육아의 일과생활을 통해 “생활함”에 대하여 묻고 답하는 일은 곧 “자유”에 대한 질문과 연결되었다. 공동육아의 삶 속의 자유는 불안전했고 변화 중이었다. 일과생활을 탐색하면서 우리는 자유란 관념적 개념으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구성해가는 실천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런 점에서 공동육아의 하루일과는 자유와 질서가 **생생하게** 상호침투, 교섭되는 삶의 그물망이다.

2. 개인과 집단의 조화를 이루는 삶의 구성체계

공동육아의 일과생활을 직조해 가는데 있어 자유와 질서의 상호작용이 씨실이라면 개인과 집단의 조화는 날실이라고 할 수 있다. 어린이가 어린이집을 들어서는 순간 아이는 한 개인에서 집단 안의 개인으로 들어온다. 이러한 관계성 속의 개인은 하루 일과 생활 내내 다양한 관계망을 형성하는데, 이렇게 형성된 관계망은 개인과 집단의 조화라는 맥락에서 역동적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 개인과 집단의 이분법적 분리나 집단의 전체성이 개인의 다양성을 파괴할 때 박제된 개인과 집단이 있을 뿐, 응집력 있게 교류되는 사회적 개인은 존재하기 어렵다.

<사례 15>

.....

연구자: 일과를 어떤 개념으로 가져갈 수 있는가? 두 가지가 대비되는데, 하나는 아이들 삶의 생체 리듬을 살려주어야 한다..... 단체 생활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진달래: 자율과 단체, 이런 게 다 질서인데 그것을 강조하는데 언제나 공동육아 교사들은 양자간에 줄다리기 하죠.....그것은 합의가 되어야 해요.....교사가 그렇든 교사와 아이가 만든 문화가 그렇든 아직은 아이들이 정말 아이들이 자유롭게 단체가 주는 질서감과 그 자율속에서 질서를 지키면서 자유를 누리는 경지까지는 못 간듯 해요.

전체적인 질서를 잡는데 주안점을 두는 시기인 것 같아요.(2007.11-15)

.....

호랑이:제가 듣기로는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체리듬과 우리가 집단적으

로 해야 하는 교육적인 의도 사이의 조화가 우리 생활문화의 키워드다. 그런 것들을 맞춰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풍부함들이 우리한테 훨씬 교육적인 가치로 다가올 수 있게 해야 하고 그 과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개인적으로 가져온 개인의 리듬, 개인의 호흡과 교육적으로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지점들의 갈등을 가능하면 줄이고 부담을 줄이면서 어떻게 해야 함께 해나갈 수 있는가를 해나가는 과정이잖아요.(07.12-15)

.....

집단에 대한 자율적 구성의 역사성을 갖고 있는 레지오 에밀리아는 자신들의 집단문화를 사회적 개인주의라고 한 바 있다. 집단과 개인의 절묘한 균형과 역동성을 경험한 그들은 관계들과 공동이라는 관계망 속에서, 집단의 동시다발적인 리듬이 살아난다고 하였다(Vecchi, 2001). 간주관성이 교류되는 집단성의 가치를 지향하는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의식도 바로 여기서 출발하였다. 즉 개인의 주체성이 집단에 의해 수립된 자기조절(통제)에 갇힐 지? 아니면 오히려 더 많은 융통성과 유동성을 획득할지?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자율적 실험을 통해 개인과 집단의 상보성을 획득한 것이다.

집단으로서 동질성을 확보하는 일과생활은 또한 동일하지 않은 개인의 주체성들이 교류하는 관계망을 통해 새로운 생활세계를 구성한다. 그리고 이러한 생활세계가 반복을 통해 관습화되어 갈 때, 또 다시 ‘반복의 차이’를 걸러내고 응집시켜 가면서 일상의 **조화로운** 질서를 회복하고 구성해갈 뿐이다. 그것이 개인과 집단의 조화로운 질서이며 지속되는 삶의 새로운 반복이다. 동일하지 않은 개체성들의 욕구를 다양한 관계망을 통해 조화로운 일과생활로 조정해 나가는 데는 운영적 전략이 필요하다. 교사들은 이러한 운영적 전략을 협력체계라고 하였다.

<사례 15-1>

진달래: 목표 지향적이라고 하는 게 명확한 것 같아. 교사들은, 그게 대부분 장소이죠. 약수터면 약수터, 뭍면 뭍. 오늘 가기로 했던 장소에 빨리 도착해야 되는데, 그게 가장 강한 것 같더라고. 교사한테는, 그런데 아이들은 과정 중심이기 때문에 가는 길도 나들이인 거야. 가서 만나는 꽃도 보고 이러는 데, 그것도 다 해주고는 싶지만 이게 개인의 자유와 단체 생활의 균형이라는 부분에서 앞서 나간 놈들이 있는 거거든. 애네를 마냥 봐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재촉하게 되고 이러는데 이 부분도 해결하는 건 통합밖에 없는 거야. 먼저 한 사람 가 있고, 뒤쳐져서 교사가 뒤에 따라 가면서 뒤에 아이들을 같이 가는 거지. 그 시간이 마냥 늘어지더라도, 해결은 그 방법 밖에 없어. 교사가 같이 가는 것. 협력하는 것. 특히 공동육아적인 시스템, 공간과 시간과 이런 것들이 자유롭고 느슨한 조직에서는 그것을 메우는 방법은 교사협력밖에 없어요.

.....

둘리엄마: 그건 어떻게 말하면 장소 지향적이거나보다 함께 하느냐, 아니면 개별적으로 아이들의 욕구, 빨리 가고 싶은 아이들, 늦게 가고 싶은 아이들을 수용하느냐. 그러니까 개인 아니면 단체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

진달래: 그 말이 핵심이에요. 집단과 개인의 욕구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 그것도 혼자서도 할 수는 있지만 한계가 굉장히 주어지고, 그게 보다 더 풍부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럿이 같이 가는 거예요. 한 장소에, 그래서 포진하는 거죠 교사들이.

연구자: 그런데 지금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개인과 집단의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일과의 키워드라고 했어요. 각각의 욕구의 차이를 개별화된 것을 좀 모아서 그 단위들을 적절한 협력 시스템으로 해주는 것이 공동육아에서의 ‘공동’이 일과에서 살아날 수 있는 ‘공동’의 의미 다,

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면 이것만큼 완벽한 건 없지 않아요?(2010.08-14)

공동육아의 하루일과생활에 요구되는 협력적 운영능력은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조직과 학습 전체 맥락에서 강조하는 협업적 자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를 이기범(2006)¹¹⁾의 주장에서 발견할 수 있다. “아이들의 개별성과 자발성을 장려하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과 다른 것을 긍정하고 배울 수 있는 관계에 참여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다룬다. 그래서 다양성이 존중될 뿐만 아니라 다양성을 조정할 수 있도록 안내된 참여 같은 관계와 의사소통이 활발하다. 구성원들의 참여가 활발한 만큼 협업적 관계가 활발해진다. 도덕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을 강조하는 것과 동시에 독립적인 개인들이 서로를 긍정하며 돌보는 협업적 자세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공동육아의 협력적 문화는 학습과정은 물론 하루 삶의 체계인 일과생활을 운영하는 교사문화에도 스며있다. 나들이와 같은 학습과정에서 어린이 개인적 욕구의 정도와 템포의 다양성들을 여러 개의 단위로 묶어 협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곧 통합교육과 연결되며, 방 담임을 넘어서 학습 및 일과운영의 협력적 방식은 인간적·문화적 고립을 가져오는 교사들의 개인주의 문화를 넘어서는 데도 의미가 있다. 이런 점에서 공동육아의 하루일과는 개인과 집단의 **생활의** 조화를 이루는 삶의 구성체계로서의 의미가 있다.

3. 삶이 흐르는 시·공간 체계

우리 삶의 일상을 구성하는 하루일과는 삶을 살아내는(가는) 틀이라는 점에서 실존적 체계이다. 공동육아의 하루 일과는 동일한 삶의 패턴을 재생산하는 구조가 아니라 삶이 흐르는 시·공간 체계라는 것을 **구성원들의 생활세계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하루일과라는 생활세계를 아이들은 다음과 같이 실존적으로 표현하였다.**

<사례 16>

둘리엄마: 아이들한테 하루 지낸 것을 글로 써보기를 하라고 했어. 7세 애들이 썼는데 재밌더라고. 그냥 간단하게 썼어. 아이들이 색종이 한 장에 ‘나는 아침에 대문 열고 계단 올라와서 현관을 열고 들어와서 놀다가 죽을 먹고 나들이를 갔다가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고 활동을 하다가 놀다가 엄마가 와서 잤다.’ 그런 식이야. 어떤 아이는 ‘나는 나들이를 갔다. 잤다 와서 잤다. 그리고 놀다가 집에 잤다.’ 이렇게 간단하게 쓴 아이도 있어요. 나름 흥미롭더라고.

스콜라: 아이들이 짚은 것은 자기한테 의미가 있었던 것을 짚는 거잖아.

둘리엄마: 크게 그렇지는 않고요. 한 아이가 ‘나는 대문을 열고 계단을 올라와서 현관을 열고..’ 그렇게 쓰니까 다른 아이들도 똑같이...(웃음)

선생님들: (웃음)

호랑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시간에 아이들이 직접 뭘 느끼나, 그런 것... 재밌겠다.(07.12-15)

‘나는 아침에 대문 열고 계단 올라와서 현관을 열고 들어와서 놀다가 죽을 먹고 나들이를 갔다가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고 활동을 하다가 놀다가 엄마가 와서 잤다.’ 이 한 문장으로 간파되는 하루일과를 우리는 긴 시간 동안 복잡하고 장황하게 이야기하였다. 그 의미를 알

11) 공동육아를 창시한 핵심멤버 중의 한 사람이자 이론가

기 위해서.....왜 그랬을까? 왜 그래야만 했을까?

<사례 16-1>

호랑이: 그때 늘 특 하면 나왔던 단어가 일상의 실체로의 질서, 자유와 질서 사이. 또는 아이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개인적인 욕구나 이런 것들을 단체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해 나아가야하는지 조율해 나가는 것. 교사도 마찬가지로 일대 다(일:多)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능하면 자유를 보장하면서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는지를 이끌어 가고자 하는 여러 가지 스킬이나 노하우들이 변화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그제 어느 순간 딱 깨어있어서가 아니라 매 순간이 그런 순간이에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그 전체를 보는 것 자체가 한 순간을 보는 것과 같이 연관이 되고 한순간 자체를 보는 것이 전체를 이해하는 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은 이런 교사와 아이들 사이에 이런 자유와 질서사이에 조율관계는 제가 경험한 어린이집에서도 보면 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 같아요..... (2009.02-14)

“그 전체를 보는 것 자체가 한 순간을 보는 것과 같이 연관이 되고 한 순간 자체를 보는 것이 전체를 이해하는 거” 이것은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로서의 일과생활을 의미한다. 일과생활이 반복적으로 살아지는 시간 목록표가 아니라 순간과 삶의 지속성 간의 연결체라고 한다면, 결국 이 연결은 우리의 생각과 매일의 실천 간의 통합성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일과생활을 통한 교사들의 삶의 실천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례 16-2>

진달래: 우리가 교사의 자세, 태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진정성이라는 것 있잖아요..... 교사의 진정성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교육활동이 교사가 의도하는 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가 판가름이 되는 것 같아요. 교사가 정말로 우리는 자기반성부터 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뭐든지 할 때, 아이들한테 주고자 하는 걸 교사가 진정으로 모든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아이들은 우리가 키우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는 거고, 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크면 애들이, ‘선생님은 앞에서만 하고 안 하지, 뭐.’ 이러면서 거기서만 하는 척하고 뒤에 가서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도 7세쯤만 되면 다 알잖아요.

호랑이: 7세가 아니라 예기도 알아요. (2007-06)

교육은 생활을 통해 이루어지고 생활은 교사들의 삶의 실천을 통해 이루어진다. 결국 하루일과는 교사들의 생각, 이념, 이론이 삶의 맥락에서 실천되는 틀인 동시에 조정되는 틀이다. 실천과 연결되는 진정성을 알아내는 능력이 있는 아이들은 자신의 삶과 일과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 생각과 실천이 합일될 때, 어른들도 하루일과의 의미를 장황하지 않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적인 합일은 생활의 복잡성과 어려움의 현실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한 일이다. 마치 레지오 에밀리아 어린이들이 “삶에 대하여”를 학습하면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운동해야 됩니다.”라고 표상한 것처럼, 삶은 매일의 그리고 순간의 실천들이 모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와 아이들의 삶이 날마다 실천되려면 하루일과는 살 만한, 살 수 있는 시공간 체계여야 한다.

V.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삶의 일상성에 주목하여 공동육아 어린이집 구성원들의 생활세계를 구성하는 반복적인 삶의 시간체계인 하루일과를 시시콜콜하게 대면하여 그들의 구체적인 삶의 경험으로부터 구성되는 하루일과에 대한 실천적 개념과 삶의 주체자인 교사들이 하루일과에 부여하는 사회문화적(독특한) 의미를 포착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별로 결론을 제시한 다음,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공동육아의 하루일과에 대한 실천적 개념을 보면, 하루일과의 흐름에서 아침열기는 어린이집이 첫 호흡을 하는 시간이다. 하루를 조율하고 계획하는 의식적 시간인 아침모듬은 밖에서 현관을 거쳐 안으로 들어오는 진입로와 같은 의미를 하루일과 흐름에서 갖고 있다. 이러한 아침모듬의 의미를 교사들이 놓칠 경우, 자칫 정형화된 일과흐름으로 아침시간을 가져 갈 위험이 있음을 교사들은 자각했다.

나들이는 하루일과 흐름에서 보았을 때, 활동으로서 독립성과 연결성을 갖는 이중적 특성이 있었으며, 시-공간-체험적으로 일과생활을 순환하게 만드는 중심축 이었다. 일과 안에서 포착된 나들이의 순환성은 곧 다른 일과활동과의 밀접한 연계성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연결이 결핍된 나들이의 일과 모습이 교사들의 비판적 성찰을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점심 먹기는 배고픈 본능과 식욕을 충족하는 행위의 문화화로 개념화 되었고, 대화가 살아있는 시간으로 재구성되었다. 즉 공동육아 하루일과에서 점심먹기는 본능과 문화가 만나는 시간이며, 음식을 먹으며 대화를 즐기는 시간이다.

낮잠은 생체리듬을 회복하는 시간이며 방 중심의 독특한 유대감과 소속감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다. 이 시간에 교사들은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고 하루 일과의 전후를 돌아본다.

오후활동은 공동육아의 하루일과에서 하루 흐름의 순환성으로부터 가장 단절된 일과라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그 결과, 결과중심, 평가 중심, 기능적인 활동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드러났다. 오후활동이 하루 흐름의 순환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세시절기와 나들이를 연결해야 할 필요성과 방법론이 제기되었다. 즉 세시절기는 시간의 수평적 차원에서 어제와 오늘을의 경험을 순환하게 하고, 나들이는 시간의 수직적 차원에서 오늘 하루의 경험을 순환하게 하기 때문이다.

공동육아 하루일과에서 세 번 이루어지는 자유놀이하는 최대한의 자유와 최소한의 제재 사이의 합당한 거리를 조정하는 노력이 요구되는 일과이다. 아침 자유놀이가 기다리는 시간, 중간 자유놀이는 감질 나는 시간인 동시에 짧고 굵게 조직적으로 노는 시간이며 저녁 자유놀이는 치열하게 놀지만 다소 복잡하고 어수선한 시간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전이과정은 추상적이고 실존하는 시간 사이의 ‘있으면서 없고 없으면서 있는 시간’이었다. 이러한 부정의 변증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이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치밀한 해석이 요구된다. 그리고 다중적인 시공간의 중첩성을 다루는 능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능력들이 발휘될 때 하루일과의 흐름에서 전이과정이 살아나고 자기 위치를 찾을 수 있다.

공동육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매일의 삶의 체계로서의 하루일과의 심층적 의미는 각 일과활동의 구성적인 개념들을 관통하는 줄기를 통해 세 가지를 발견하였다. 자유와 질서가 상호 침투 교섭되는 삶의 그물망, 개인과 집단생활의 조화를 이루는 삶의 구성체계, 그리고 삶이 흐르는 시공간 체계였다.

지금까지 살펴 본 공동육아의 하루일과는 그 개념과 용어가 독특하고 생소하지만 일반 유

아교육 측면에서 볼 때, 아침열기는 등원, 아침 모듬은 이야기 나누기, 오후활동은 대소집단 활동, 자유놀이는 자유선택활동 또는 실외놀이, 전이과정은 전이활동, 나들이는 매일은 아니지만 가끔 이루어지는 산책활동으로 연관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익숙하다.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점심과 낮잠은 크게 낮설지 않을 것이다. 다양한 대소집단 활동에 해당되는 공동육아의 오후활동 역시 일반유치원에서 실행하는 주제중심의 통합교육과정이 아이들의 경험 수준에서 진정으로 통합되려면 어제-오늘의 수평적 촉과, 하루의 수직적 흐름을 연결하는 순환적, 나선형적 교육과정이어야 한다는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처럼, 공동육아의 하루일과에 납득할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하루의 흐름의 맥락에서 일과생활을 해석하고 개념화한 언어들을 보편적인 유아교육 수준에서 보게 되면 여전히 낯선 부분이 있다. **표현된 언어와 논리 자체가 달라서라기보다, 공동육아 특유의 사회문화적 철학과 특성이 반영된 문법체계로 건져낸 언어들이기 때문이다. 하나의 교육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사들의 교육행위와 해석은 가시적이고 암묵적인 사회문화적 전체들을 반영하기 마련이다. 정병호(1994)는 아이들이 한 사회의 언어를 배울 때, 무의식적으로 문법을 익히듯이 이러한 문화적 틀 속에서 아이들은 가장 근본적인 문화적 사회적 규칙성 즉, 문화적 문법을 익힌다고 하면서 어린이집에서 공유하게 되는 문화적 틀은 아이들에게 대단히 넓고 깊다고 하였다. 이러한 문화적 틀이 하루일과 생활과 관련될 때 핵심 키워드는 시간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적 시간관에 초점을 두고 특히 근대 교육의 시간관에 비판적인 이론적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공동육아의 일과생활과 흐름은 근대적 시간관인 효율성과 생산성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학교의 시간체계가 근대 산업사회의 시간체계를 따르고 있다는 비판은 많은 교육학자들이 제기해 온 문제이다. 좀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니체적인 계보학자인 Faucault(1975)는 역사적인 제도(종교, 병영, 병원, 공장, 학교)들이 순종-효용의 관계를 강제하는 규율(discipline)을 통해 어떻게 순종적인 신체를 만들어왔는지에 대해 계보학적으로 미세하게 기술하였다. 그에 따르면 시간표는 오래된 유산이라는 것이다. 규율은 긍정적인 관리를 그 목표로 하며, 적극적인 경제시간과 이론상으로 항상 증대되어가는 이용의 원리를 세운다. 즉 시간으로부터 항상 보다 많은 이용 가능한 순간을, 그리고 매순간 항상 보다 많은 유효노동력을 이끌어내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증명하는 기록을 푸코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신호나 호각이나 명령에 의한 리듬이 학습과정을 과속화함과 동시에, 속도를 하나의 미덕으로서 가르치는 시간적인 규범을 모든 학생들에게 부과했다. “이러한 명령의 유일한 목적은...동일한 작업을 학생들이 신속하고 착실하게 실행하게끔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한 작업에서 다른 작업으로 이행하게 될 때 생기는 시간적 손실을 신속성에 의해 가능한 한 감속시키려는 것이다.”>사무엘 베르나르의 <상호교육협회>에의 보고(1816년 10월 30일)규범화한 체제(p267)

그런데 유아교육 기관에서 전이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지를 안내하는 이론가들의 공통되는 내용을 한 번 보자.

<“전이방식은 언어적 지시, 악기나 기타 도구의 사용, 음악이나 노래 등을 들 수 있으며, 전이가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수록 유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의미없이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 전이과정에서 교사의 의사가 분명하게 전달된다면 유아는 교사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다음 활동을 준비할 수 있는 자율성을 기르게 된다. 또한 유아는 다음에 할 활동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빨리 다음 활동에 몰입하기 때문에 학습에 투자하는 시

간이 늘어나게 된다.”>(김희진, 2005, 이경미, 2009, 재인용)

이와 같은 전이시간에 대한 설명에서 푸코의 규범화한 체제와 상당한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차이가 있다면 유아 자율성의 강조인데 이것이 생산적인 학습투자시간과 독립적일 수 없는 것이라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러한 규범이 하나의 전범으로 교사들에게 가시적, 암묵적으로 내면화된다면 결국, **통제를 통해** 규격화를 추진하는 권력은 동질성을 강제한다는 푸코의 우려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기 어렵다.

일상생활에서 어린이가 시간을 어떻게 지각하는 지를 현상학적 관점에서 탐색한 Knaus(2009)에 따르면, 어린이의 시간 사용을 규정하는 데 있어 푸코의 입장인 권력관련성이 우리 문화에 내재해 있다고 주장한다. Wein & Kirby-Smith(1998)에 의하면, 많은 유아교육이론가들 역시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교육과정을 강조함으로써 자연스레 쫓기지 않는 시간조직을 중요하게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다수의 유아교육 프로그램들의 실제에서 효율-생산성에 기반을 둔 시간조직 및 일정이 점차 증가되는 상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교사가 언제 교육활동을 시작하고 끝낼 지를 시계에 의존하는, 시계 지배적인 교육적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역시 푸코의 관점을 해석적으로 활용한 이현진(2009)의 연구에서 공동육아의 압축된 하루일과를 보고 반응하는 공동육아 외부인들의 목소리는 근대적 시간관과 탈근대적 시간관의 낯선 조우에 따른 혼돈스런 느낌을 잘 드러내 준다. 특히 일과생활에 대한 서로 다른 전체와 입장이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여기에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긍정적 측면도 있었다. “일과 전체를 이렇게 느슨하게 갈 수 있다는 게 놀랍다. 교사들이 아이 하나 하나를 충분히 기다려 주고 반응하는 것은 좋게 생각되는데, 그럴 때 나머지 아이들은 너무 기다리는 문제를 공동육아 교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며 질문을 던지는 사람도 있었다. 또 “우리 같은 일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전이시간을 길게 가지 않고 최대한 짧게 하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 ‘친구들이 기다리니까 빨리, 빨리하자.’로 상황을 끌고 간다”는 성찰적 발언도 있었다. 이와는 반대로 공동육아의 일과가 낯설뿐만 아니라 교육적으로 부적절하다고 까지 평가한 경우도 있었는데, “공동육아의 일과활동은 분명한 게 별로 없다. 도대체 지금 뭐하는 시간이며, 누가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지, 아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일과비디오를 보면서 이러한 점들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다.”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면서 누군가는 “공동육아는 우리와 다른 시간개념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문제의 핵심을 간파한 사람도 있었다.

나는 공동육아 일과생활을 낯설어하는 다양한 언어들을 통해 또 다른 희망을 본다. 공동육아 일과에 대한 외부 교육자들의 질문, 성찰, 비판 및 시간개념에 대한 통찰적 포착은 우리가 삶의 시간인 일과의 흐름을 **다양하게**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희망적이라는 것이다. 나는 여기서 모든 학교의 일과생활 시간이 공동육아처럼 가야한다는 주장을 펼 생각은 없다. 다만 공동육아의 다른 삶의 체계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보편적 시간 체계인 근대적 교육시간에 대해 성찰적으로 생각해볼 기회를 갖자는 것이다.

이경미(2009)의 연구에 따르면,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들의 하루일과는 전적으로 교사의 계획과 관리 하에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다**. 비교적 공동육아에 비해 효율적인 일과시간을 운영하는 일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일과생활은 학습지 영역과 비디오 영역을 두어 시간을 보내게 함으로써, 아동의 놀 권리를 침해하고 다양한 특별활동 안배로 인한 과중한 학습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한다. 반면 아이들은 실내의 자유선택활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동적인 활동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전이

VI. 참고문헌

시간에 해당되는 것으로, 아이들이 다음 활동 참여를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 아주 많았고 심지어는 아이들이 활동실 밖으로 돌아다니는 상황도 빈번했다는 것이다. **이경미는 교육적으로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던 등원과 하원을 포함하여 하루일과가 유아에게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탐색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좀 더 확대하여 주장하자면, 하루일과의 흐름의 맥락에서 각각의 일과생활과 활동이 유아와 교사의 경험적 차원에서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탐색해야 한다. 그리고 일과 시간의 주도권, 삶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현재 우리가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일과생활을 통해 확보하고 있는 생활시간, 교육시간이 언제부터 존재했고 어디로 부터 나온 것인가에 대해 진지한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한다.

Wein(1996)은 교육적 상황과 사태를 결정하는데 있어 시간이 지배적이게 되면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질을 상실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프로그램이 발달적으로 적합하기 위해서는 생산적 일정으로 짜여진 (근대적) 시간조직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런 점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의 교사들은 하루일과 생활 및 활동에 대한 단 하나의 해석안을- 그것이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었든, 이론가들의 주장이었든- 넘어, 자신들의 일과행위와 경험을 해석함으로써 일상의 의미, 하루일과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실천적 작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들이 이러한 실천들을 해낼 수 있도록 교사교육 차원에서 연구자들은 협력해야 할 것이다. 교육이 이루어지는 제도적 시간에 대한 사회문화적 당위와 매듭을 재검증하는 데는 교사교육 뿐만 아니라, 학교조직과 교육정책의 변화도 수반되어야 함을 Brown, Castle, Rogers, Feuerhelm, & Chimblo(2006)은 강조하고 있다.

Blumer(1966, p.538, 손장권, 이성식, 전신현, 1994, 재인용)는 "이미 확립된 집단생활의 유형은 계속적으로 오직 같은 해석안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존재하고 유지되는데, 그러한 해석안들은 결국, 다른 사람들의 행위를 정의하는 지속적인 확인작업을 통해 지속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유아교육 이론가·실천가들이 하루일과 생활 및 이에 내재된 교육자들의 내면화된 시간관에 대한 확인 작업과 실천적인 검증을 통해 우리의 해석안을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실천적 당위성에서 공동육아 역시 한 치도 자유로울 수 없다. 공동육아가 일상의 자유를 지향하는 철학과 문화가 있다고 해서 그 존재(being)만으로 자유와 질서의 상호침투성, 개인과 집단의 조화, 삶이 흐르는 시간체계라는 일과생활의 의미가 저절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반복을 통해 변화되는 일상과 자신들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끊임없이 연결하고 삶의 의미를 구성-재구성해나가는 지속적인 과정에서만 획득되는 것(becoming)이기 때문이다.

고병권(2007). **고추장, 책으로 세상을 말하다**. 서울: 그린비.

광주대학교 초등학교문화연구소(2003). **초등학교의 일상문화: 자기성찰의 학교문화**. 서울: 양서원.

서영희(2008). **표준보육과정과 생태보육과정의 운영 실체에 관한 연구: 교사와 유아의 일과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손장권, 이성식, 전신현(1994). 습관, 감정, 그리고 자아의식적 행위. **미드의 사회심리학**. 서울: 일신사.

이경미(2009).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가 경험하는 하루일과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기범(2006). 참여적 학습과 보육공동체. 이부미, 이기범, 정병호 편. **남겨 쿵: 삶의 시삭**. 서울: 또 하나의 문화.

이정선(2003). 초등학교의 일상문화. 광주대학교 초등학교문화연구소 편. **조능학교의 일상 문화: 자기성찰의 학교 문화**. 서울: 양서원.

이현진(2009). Diverse voices on a cooperative child care center in Korea. **능북아: 유아연구 제20집**. 299-319.

정병호(1994). 공동육아 운동론. 공동육아 연구회 편. **남겨 쿵: 우리 아이**. 서울: 또 하나의 문화.

조상식(2005). 일상의 중요성: 철학적 현상학의 관점에서. 일상의 재발견. **한국예시교육학회 2005 연산연구 발표회**. 7-17.

Brown, P. U., Castle, K., Rogers, K. M., Feuerhelm, C., & Chimblo, S. (2006). The nature of primary teaching: body, time, space, and relationships. *Journal of 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 28, 3-16.

Ben Madel. (2001). Moving across the atlantic. In C. Giudici, C. Rinaldi & M. Krechevsky(Eds.), *Making learning visible: children as individual and group learners*. Reggio Children, s.r.l.

Counihan, C. M. (2005). **음식과 몸의 인류학**(김정희 역). 서울: 갈무리(원저 1994. 출판).

Dahlberg, G. Moss, P. & Pence, A. (2007). **포스트모던 유아교육: 새로운 이해와 실천을 열어가기**(김희연, 신옥순, 염지숙, 유혜령, 정선아 역). 서울: 창지사(원저 1999. 출판).

Faucault, M.(1994). **감시와 처벌-감옥의 역사**(오생근 역). 서울: 나남출판(원저 1975. 출판).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Sage Publications, Inc.

Strozzi, P.(2001). Daily life at school. In C. Giudici, C. Rinaldi & M. Krechevsky(Eds.), *Making learning visible: children as individual and group learners*. Reggio Children, s.r.l.

Vecchi, V.(2001). The curiosity to understand. In C. Giudici, C. Rinaldi & M. Krechevsky(Eds.), *Making learning visible: children as individual and group learners*. Reggio Children, s.r.l.

Wein, C. A.(1996). Time, work, and developmentally appropriate practic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1*, 377-403.

Wein, C. A, & Kirby-Smith, S.(1998). Untiming the curriculum: A case study of removing clocks from the program. *Young Children*. *53*(5). 8-13.

ABSTRACT

The exploration to practical concept and educational meaning on daily routine of Cooperative Child-care Center

Lee, Boo-Mi (Associative Professor, Kyonggi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ractical concepts of daily routine of cooperative child-care center and its educational meanings in the context of daily life.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practical concepts of daily routine of cooperative child-care center are as follows:

The opening of the morning : The time for the first breath

The morning meeting : The entering stage of the daily routine

Taking a walk : The axiom of the routines of working structure

The lunch time : The time in which combine intrinsic needs with cultural ritual and the time for living communication

The napping : Recovering time of the bio-rhythm and the time for feeling the intimate belongings

The afternoon activities: Recovering time of the circulation of daily routine

Th free play time: The waiting time, the exciting time, and the time for playing intensively

The transitional process : the between time that being and without it being in spectrum from ideal to existential state.

The educational meanings of daily routine are the network that the liberty and the order permeate reciprocally, the life structure that each individual and the lives of group harmonize, and the living time and space system.